

놓치지 마세요! 선상가공업 신고

선상가공업이란?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수산동식물을 원료하여 냉동하거나 냉장하는 사업

선상가공업에 해당하는 선박은 반드시
조업 전 **선상가공업 신고**를 해야합니다!

중요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는 변경사항 발생 후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합니다!

* 대표자, 선박의 명칭, 선적항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신고해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부산지원



원양산업

제 1179 호
(2025년 3월 15일 발간)

창간: 1972년 8월 1일
등록일자: 1981년 8월 27일
등록번호: 라-9183호 / 월간발행(비매물)

Contents



협회소식

- 2025년도 협회 정기총회 개최 / 4
- 국회 2025년 수산단체 대표자 초청 간담회 참석 / 5
- 제13차 SPRFMO 연례회의 참석 / 6
- 원양어업, 미래 수산업과 식량산업에서의 중요성 커 / 7



명예해양수산관 리포트

- 명예해양수산관 리포트 / 10



이달의 요리

- 황태구이 / 15



해외수산정보

■ 국제유가 동향

- 3월 싱가포르 MGO 가격, 평균 641달러 / 16

■ 참치어업 동향

- ISSF, 2025년 RFMO별 우선 계획 발표 / 17

- 중서부태평양 1월 어획량 약 12만 톤 / 18
- 동부태평양 2024년 어획량 대폭 증가 / 19
- 에콰도르 24년 동부태평양 어획량, 기록적 수준 / 20
- 日, 지중해산 양식 참다랑어 필렛 강세 / 21
- 日 2025년 1월 냉동 다랑어류 수입 통계 발표 / 22
- 태국 2024년 참치 원어 수입량 역대 최다 수준 / 23
- PNA 1월 전채량, 전월 수준 유지 / 23
- 美 2024년 참치 통조림 수입, 전년 대비 다소 증가 / 24
- 태국의 2024년 소규모 수입국 대상 통조림 수출 급증 / 24
- 美 참치 파우치 시장 성장 둔화 / 25
- 캐나다, MSC 참치 매출 급증 / 25
- EJF, 인도양 中 연승선 북한 선원 인권침해 폭로 / 26
- 中, 참치 풍부한 쿼제도에 전략적 진출? / 27
- 팔라우, 지역 참치 가공업에 지지 표명 / 28
- 통조림 참치, 강력한 성장 예상 / 29
- 대만 오징어참치 원양어업, 중대한 기로에 직면 / 30
- 노르웨이 참다랑어 어업, 25년 어업 계획 승인 / 31

■ 오징어어업 동향

- 中, 아르헨티나 수역서 오징어 싹쓸이 조업 / 32
- 日 언론 “아르헨티나 일렉스 어획량 전년도 수준” / 32

원양산업
제1179호

발행일
등록번호
2025년 3월 15일
1981년 8월 27일
라-9183호

발행처
대표인
한국원양산업협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6층
(양재동, 삼호물산A빌딩)

발행인
편집인
김영규

Contents

- 포클랜드, 3월 1일 로리고오징어 조업 시작 /33
- 칠레, 1월 오징어 수출 급증 /34

■ 명태어업 동향

- 2025년 8주차 한국 명태 가격, 상승세 전환 /34
- 오호츠크해 명태 48만 2,000톤 이상 어획 /35
- 러, 460만 톤 이상 어획 /35
- 유엔, 반러시아 제재로 유럽에 생선 제품 부족 경고/36
- 2024년 러시아 어업 순수익 31% 감소 /38
- 러, 양식어업 군 대체 복무 대상 포함 /38
- 러 연구소, 조업 상황 과학 모니터링 /39
- 러, 2월 19일 시점 어획량 전년 대비 10% 감소 /40
- 러, 2월 18일 시점 수산물 67만 톤 생산 /40
- 신조선 8척, 투자 쿼터에 따라 캄차카서 건조 예정/41
- 캄차카, 지난해 120척 선박 수리 /41
- 베링해 명태 어업 제한 도입 /42
- 러 명태 필렛 생산량, 2년 만에 증가 /43
- 러시아의 생선 가격 상승 /44
- 러시아 생선 통조림 가격 최대 25% 상승 예상돼 /44
- 美, 2024년 명태 섭취량 기록적 수준 /45
- 러, 수출관세 2025년부터 폐지 /45

■ 공치어업 동향

- 日 홋카이도 공치협회 “소형선 조업 체제 구축 목표” /46
- 日 공치붕수망협회 “8월 10일 출어 예정” /47
- 日, 공치붕수망어선의 북태평양 오징어 검업 검증 추진/47

■ 각국 수산 동향

- 트럼프, 관세 조치 일시 연기...시장 혼란 /48
- 러, 2024년 북서태평양수역 러 근해 어획량 분석/48
- 美, 관세 장벽으로 수산물 수출 감소 /49
- 스페인 조선소, 이빨고기 조업 트롤 어선 건조 /50
- 아르헨 수산업, 국제 변화 고려한 역량 발전 필요성 제기/50
- 수산물, 타 단백질 대비 환경 영향 훨씬 적어 /51
- 미국 외식산업 2025년 매출, 1조 5,000억 달러 기록/52
- 글로벌 수산물 시장의 주요 트렌드 /53
- 노르웨이, 16년간 기록적인 러시아산 생선 수입 /54
- 日, 여전히 베트남의 최대 수산물 수출 시장 /55
- 태국, 가공 수산물 수출 선도국 입지 강화 /56
- 中, 2024년 해양산업 총생산 10조 위안 달성 /57



쉬어가는 난

- 명태- 손택수 /58



국내 수산 정보

- 2월 오징어 국내 동향 /59
- 2월 명태 국내 동향 /61
- 강도형 장관, 우루과이 대통령 취임식 특사로 파견/63
- SPRFMO, 쿼터 25% 증가 등 보존관리조치 합의/64
-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실시 /64

2025년도 협회 정기총회 개최

협회 정기총회 및 이사회 안건 논의



우리 협회는 2월 27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2025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202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을 심의, 의결하였다.

협회는 또한 정기총회에 앞서 같은 날 오전 제21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결산보고를 하였고, 202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정기총회 부의안건 등을 승인받았다.

김영규 회장은 “지난해에는 대내외적인 도전과 어려움이 많았지만, 원양생산 117% 달성과 해기사 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정 합의 등 귀중한 결실을 맺었다”라고 말하였다. 아울러, “글로벌 어업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과 해기 인력 안정화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임을 강조하였고, “2027년 원양진출 70주년을 앞두고 원양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모델을 구축하고, 선박직원법 개정안 법안이 조

속히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또한, 해외수산자원의 안정적 확보 및 관리, 선원 관리 강화, 선박·선원의 안전 지원 확대 및 경영 안정 지원을 사업에도 소임을 다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협회는 이날 정기총회에서 임기 만료되는 신현애 해외협력본부장의 재선임 및 전무이사 승진, 이성재 경영지원본부장의 상무이사 승진을 의결하였다.

협회는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 대응, 재도약하는 원양산업’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이를 위한 2025년도 주요 사업 추진 계획으로 ▽원양어업 진출 70주년(2027년) 맞아 재도약 준비 ▽해외수산자원 안정적 확보 및 관리 ▽해기 인력 안정화 및 선원 관리 강화 ▽선박 및 선원 안전관리 지원사업 강화 ▽경영 안정 사업을 통한 경쟁 우위 강화를 제시하였고, 목표 생산량을 77만 톤(합작 포함)으로 책정하였다.

국회 2025년 수산단체 대표자 초청 간담회 참석

현안 논의 및 업계 건의 수렴



우리 협회는 지난 2월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2025년 수산단체 대표자 초청 간담회에 참석하였다. 해당 간담회는 국회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가 주관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22대 국회 개원을 맞이하여 새롭게 구성된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과 현장 간의 인사를 나누고 수산분야 과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간담회에 국회 측에서는 어기구 농해수위원장과 이원택 민주당 간사를 비롯하여 송옥주·윤준병·임호선·주철현·문금주·문대림·이병진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이 참석하였다.

수산단체 대표로는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수산회, 한국해양수산신지식인중앙연합회, 한국수산무역협회,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한국내수면양식단체연합회, 한국김산업연합회, 전국어민회총연맹, 한국새우양식총연합회, 충남마른김가공수협, 스마트수산어촌포럼 등이 참석하였다. 우리 협회에서는 김영규 협회장이 참석하였다.

협회장은 간담회에서 의원들에게 외국인 해기사 승선을 허용하는 선박직원법 개정의 빠른 통과를 요청하였다.

협회장은 아울러 △원양선사 법인제 산출 시 톤수방식 계산 제도 도입 △해기인력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한 선원 비과세 확대 등을 건의하였다.

제13차 SPRFMO 연례회의 참석

이빨고기 보존관리조치 등 논의



우리 협회는 지난 2월 9일부터 2월 24일까지 칠레 산티아고에서 개최된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SPRFMO) 제13차 연례회의에 참석하였다. 11일부터 14일까지는 이행위원회가, 17일부터 21일까지는 연례위원회가 진행되었다.

17개 회원국 정부대표 등이 이번 연례회의에 참석하였고,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김정례 주무관이 총회 의장 자격으로 참석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나일강 주무관(수석대표), 국립수산물과학원 김은정 연구사, 조업감시센터 김태린 주무관, 해외수산협력센터 김수민 전문관이 참석하였다. 원양업계에서는 동원산업 이상범 상무,

티앤에스산업 최현중 부장 외 1명이 참석하였고, 우리 협회에서는 해외협력2부 최상진 주임 외 1명이 참석하였다.

이행위원회에서는 ▽협력적 비회원국 지위 갱신 ▽회원국별 이행사항 평가 ▽IUU 선박목록 검토 등이 논의되었다. 연례회의에서는 ▽'25년 전쟁이 어획 한도, 국가별 할당량(한국 '25년 18,506톤, 전년도 대비 3,701톤 증가) 관련 논의 ▽오징어 금어수역 및 금어기 등 제안 관련 논의 ▽한국뉴질랜드의 이빨고기 시험조업 제안 ▽선상 최소 근무여건, 강제 노동·학대 및 선원 사망·질병·부상·실종 시 조치사항 등 신설 보존관리조치 제안 논의 등이 이루어졌다.



원양어업, 미래 수산업과 식량산업에서의 중요성 커 수산자원 공급과 국가경제에 기여

우리나라 원양어업은 1957년 인도양 참치연승어선(지남호) 최초 시험조업 실시 이후 70년 가까이 수산자원을 공급하고 국제경제에 이바지하는 한 축으로 자리 잡아 왔다.

우리나라 원양어업은 참치연승 시험조사선 지남호가 1957년 6월29일 부산항에서 출항, 인도양으로 출어하면서 시작되었다.

지남호 시험조업 이후 1970년대 말까지 원양어업으로 벌어들인 외화는 당시 기준으로 약 20억 달러에 달한다. 원양어업은 6.25 전쟁 이후 경제 재건과 산업화의 밑거름이 되었다. 1971년 원양어업 수출액이 우리나라 총수출액의 5%를 웃돌기도 하였다.

원양산업 60년사에 따르면 1958년 미국령 사모아 섬을 기지로 하여 남태평양 진출, 1964년 대서양 버뮤다섬 근해 진출, 1965년 라스팔마스 출어와 1966년 인도양에 본격 진출하였다.

1967년 북태평양 트롤어업의 시험조업 성공 이후, 우리 원양어업은 참치연승어업과 트롤어업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조업 수역도 북태평양, 남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으로 확대하였다. 1969년, 1970년에는 남미 수리남 근해에서 새우트롤 시험조업과 본 조업이 이뤄졌다.

1970년대 이후에도 가다랑어 채낚기어업개발, 1973년 명태 필렛 개발 및 수출, 1975년 이란해역 트롤어장 개발, 1979년 북태평양 오징어 유자망어업개발, 1982년 남동·남서대서양 트롤어장 개발, 1983년

파키스탄 수역 및 1985년 남서대서양 포클랜드 어장 개발을 통하여 우리나라 원양어업은 크게 발전하였다.

1990년대 원양 참치어업은 정부의 강력한 수출 정책에 이바지하였고, 2000년대 조선업, 선박기자재, 전자기기 등 연관 사업의 발전에도 기여하였으며 외국 연안국과의 협력 및 해양 영역 확장에도 이바지하였다.

우리 원양어업은 시작부터 국가 기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 주도 사업이었다. 이에 따라 1970년대 원양어업의 고도 성장기를 거치면서 우리나라 원양어업은 세계 3위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원양어업은 정부의 수산물 수출 진행 정책에 힘입어 적극적으로 해외어장을 개척하며 수출 효자 산업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하지만 주요 연안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확대 선포와 국제사회의 공해어업 규제 여파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

1990~2000년대 국제여건의 변화와 민간 주도적 원양어업의 성장은 한계에 부딪혔다. 민간주도의 단순한 입어, 어선 노후화, 고비용 구조 등은 시장 자유화로 인하여 변화 적응에 한계가 있었고 여기에 후발 원양국의 세력 확대, 자원 보유 연안국의 외국어선 조업 규제가 강화되면서 원양어업 경영상황은 악화하였다.

1990년 810척이던 원양어선은 지난해 201척까지 줄었다. 이 중 선령 31년 이상의 노후 어선은 약 80%에 달한다.

2000년대 후반부터는 원양어업의 산업화가 추진되었다. 원양산업화로 원양어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기



반 마련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원양산업화는 합작선 어업과 연안국 국제협력사업 등 단순한 입어 위주의 원양어업을 다양한 형태의 사업으로 전환하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불러왔다. 정부와 원양업계와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전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국회 및 정부와 협력하여 2008년 원양산업발전법을 제정하였다.

하지만 원양산업으로의 전환을 피하겠다는 정부와 업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에 걸쳐 예비 IUU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국으로 지정되어 국제사회로부터 성토를 받았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 1월과 11월, 미국과 유럽 연합(EU)으로부터 각각 우리 원양어선의 불법어업, 낮은 제재 수준 및 관련 시스템의 미흡 등을 이유로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되었다. 이어 2019년 미국으로부터 예비 IUU 어업국으로 또 한 번 지정되었다. 2017년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의 보호 및 관리 조치를 위반했는데도 우리 정부는 이러한 위반에 대해 효과적 행동과 관리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두 차례의 예비불법어업국 지정은 우리 원양업계가 국제규범을 더욱 철저하게 준수하는 계기가 되어 우리나라의 원양어업의 선박 안전 관리 및 교육, 국제기구 및 연안국을 포함한 각종 사전 및 사후 보고, 모니터링 운용 시스템 등은 이미 해외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또한 우리 원양어업은 수산자원 관리와 해양환경 보호를 통한 지속가능 어장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3개 국제수산기구(일반 5개, 지역기구 18개)에 가입하여 지속가능한 어업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 이들 국제수산기구는 자원평가에 따른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멸종위기종 등에 대한 보호조치, 옵서버 승선, 선박위치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자원 보존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우리나라 원양업계는 지속가능성 인증을 얻어 획득하며 원양어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있다.

지속가능성 인증은 동원산업이 가장 먼저 2019년 참치선망에서 MSC(해양관리협의회) 인증을 받은데 이어 2020년 중서부태평양 참치연승어업에서도 인증을 획득하였다. 또 2021년에는 정일산업이 남빙양 크릴어업, 티앤에스산업이 로스해 남극이빨고기 어업에서 MSC 인증을 받았다.

지난해 12월에는 대해수산이, 올해 1월에는 사조그룹이 중서부·동부 태평양 다랑어 연승어업이 MSC 인증을 취득하는 등 수산자원량 보전과 생태영향 최소화, 효과적인 어업관리시스템을 갖춰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 원양업계가 또 한 번 도약을 위해 나서고 있지만 어선 노후화, 어장 축소, 선원 구인난 등 고질적인 문제로 인하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현재 선령 31년 이상 노후 원양어선비율이 약 80%에 달한다. 정부가 2019년부터 노후화된 원양어선의 대체 건조를 지원하는 원양어선 현대화 펀드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이 사업을 통하여 신조선 대체가 완료된 어선은 오징어 채낚기 5척, 트롤선 2척뿐이다.

어선 노후화보다 더 큰 문제는 인력 부족이다. “배는 있는데 사람이 없어서 출어를 못 나갈 판”이라는 원양업계의 호소는 원양어업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젊은 선원은 힘든 원양어선을 기피하고 숙련된 해기사의 해외 이탈이 잦아지면서 원양업계의 인력 부족은 더욱 심화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해양수산부와 전국원양선원노동조합, 한국원양산업협회가 지속가능한 원양어선 해기전승



과 원양산업 발전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문 서명식을 갖고 참치연승업종에 외국인 기관사를 도입하는 방안을 합의하는 등 외국인 선원 고용에 대한 물꼬를 텄다. 하지만 일부 업종에 한정된 데다 선박 운항 전문 인력인 해기사 부족을 메꿀 수 없어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

다른 나라 해기사 자격증을 보유한 외국인은 국내에서 기관사로 취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우리나라는 국가 간 해기사 자격증의 상호 인정을 위한 '어선 선원의 훈련·자격 증명 및 당직 근무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국제 선원 협약 가입국의 해기사 자격증을 보유한 외국인의 국내 취업을 허용하는 '선박직원법' 개정이 시급하다. 지난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조경태 의원(국민의힘·부산 사하구을)이 발의한 '선박직원법'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원양어업은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 부족 우려 속에서 해외 수역에서 수산자원을 확보하는, 국가 식량안보에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산업이다. 해외에서 조업하는 선박은 국적을 가진 국가의 배타적 관할권에 속하기 때문에 원양어업은 해외 영토의 연장이다.

세계 각국은 이미 어업 기반 시설과 생산망 장비의

현대화, 재정 지원 등 원양어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그만큼 미래 수산업과 식량산업에 있어 원양어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우리도 더 이상 원양어업을 민간차원이 아닌 국가 식량안보 차원에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원양어업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초창기 원양어업이 정부 주도 사업으로 성장하였기에, 1963년 창립된 한국원양어업협회는 1990년대 12대 회장까지 2대 이재오 회장(화양실업 사장), 6대 이학수 회장(고려원양어업 사장), 8대 오진호 회장(대림수산 사장)을 제외하고는 수산청장, 육군 준장, 해군 참모총장 등 정부관료 또는 군인 출신이 회장을 맡아 협회를 이끌어왔다.

13대 김재철 동원산업 사장이 회장을 맡은 1990년 이후로 박준형 신라교역 사장, 왕기용 동원수산 사장, 임우근 한성기업 사장, 오치남 대림수산 사장, 장경남 덕우수산 사장, 윤명길 동남 사장 등이 협회장을 맡아 원양업계 목소리를 정부에 알리는 역할을 하였다. 지난해부터 협회는 다시 정부 관료(수산청, 청와대, 수산과학원장) 출신 김영규 회장이 협회를 이끌고 있다.

〈어민일보, 2025년 1월 6일자 게재〉



◇ 승진

신현애 상무이사(해외협력본부장, 해외협력1부장 겸직) → 전무이사

이성재 이사(경영지원본부장, 기획홍보부장 겸직) → 상무이사



명예해양수산물 리포트

김점봉 세네갈 명예해양수산물



김점봉
명예해양수산물

가. 프랑스 군 철수 예정

- 프랑스는 2025년 여름부터 세네갈과 서부 및 중앙아프리카의 영구 군사 기지를 폐쇄할 계획이다. 프랑스군 소식통에 따르면 이러한 계획은 2023년 여름부터 준비에 착수하여 프랑스 군 기지 존재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였으며, 주둔 국가 간의 협력은 지속될 것임을 밝혔다.

나. 어가 동향

어종	규격	가격(\$/톤)
황다랑어	10kg 초과	1,610
	3.4~10kg	1,510
	1.8~3.4kg	1,410
	1.5~1.8kg	1,260
	1.5kg 미만	1,060
눈다랑어	10kg 초과	1,260
	3.4~10kg	1,260
	1.8~3.4kg	1,260
	1.5~1.8kg	1,110
	1.5kg 미만	910
가다랑어	3.4kg 초과	1,460
	1.8~3.4kg	1,410
	1.5~1.8kg	1,260
	1.5kg 미만	1,060

다. 유가 동향

공급	유종	가격(유로/톤)	조사일
다카르항	MGO	640	'25.3.4

김종태 피지 명예해양수산물



김종태
명예해양수산물

가. 피지 정부, 어업의 역할 강조

- 피지 수산부에 따르면 어업은 피지 경제에 2억 710만 달러의 기여하며 피지 경제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어업은 국가 수출 수익의 8%를 차지하며 수익 대부분이 참치어업 및 가공으로 주도되었다.
- 또한 피지 수산부는 피지에서 개최된 제21차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연례 회의의 성공적 개최로 수산분야 리더십과 지속가능한 관리에 대한 의지를 국제적으로 알리고 강화하였다고 밝혔다.

나. 호주 정부의 재정 지원

- 호주 정부는 7,200만 달러의 추가 예산 지원(지난 5년간 5억 8천만 달러 이상 지원)을 약속하며, 두 나라의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였다.
- 피지 부총리는 이러한 호주의 재정 지원이 건강과 교육을 포함한 주요 개발 분야에 집중될 것이며, 재정 관리, 민간 부문 개발, 성평등 이니셔티브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중요한 개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



하였다.

다. 한-피지 간 양자 협력 강화

- 우리나라는 피지와의 협력을 지속 강화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재생에너지, 의료, 생계 개선, 건강, 교육, 농업, 기후변화, 재해 위험 회복 등 13개의 프로젝트 시행으로, 1억 6,500만 달러 이상이 지원될 것으로 예정이다.
- 이에 피지 외교부 차관은 주피지 한국대사와의 만남을 통하여 양국 간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라. 어가 동향

어종	규격	가격(\$/톤)	비고
날개다랑어	10kg 상	2,400	로인가공용(PAFCO)

마. 유가 동향

공급	유종	가격(\$/톤)	조사일
Total	MGO	1,375	'25.3.10

- 이 프로그램은 관광지 관리, 전통문화 보존, 창업 지원 방식으로 운영되며, 관광객 유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

나. 콜드체인시스템 통한 고품질 수산물 공급

- 인도네시아는 풍부한 어족자원을 보유하면서도 선한 수산물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이는 낙후된 냉장시설과 유통망이 그 원인이다.
- 이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콜드체인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산물 급식의 품질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콜드체인시스템 활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학생의 영양상태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 유가 동향

공급	유종	가격(\$/kl)	조사일
Pertamina	MDF	990	'24.12.5

오시영 사모아 명예해양수산물관

박상천 인도네시아 명예해양수산물관



박상천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해양관광마을 개발 지속 추진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6년부터 해양관광 활성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간 108개 해안마을이 지원을 받았고, 이 중 23개의 마을이 해양 관광마을로 공식 지정되었으며, 올해 7개 마을이 추가될 예정이다.



오시영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어장 동향

- 아메리칸 사모아 및 연근해 쿡 아일랜드 어장에서 날개다랑어를 평균 0.5~0.8톤, 황다랑어와 눈다랑어를 평균 0.2~0.4톤을 어획하여 전월과 유사한 어획률을 기록하였다.

나. 사모아 대표단 방문

- 김성진 전 해수부 장관, KMI 마창모 수산연구본부



장 등이 한국의 수산물 무역 대응 방향 마련을 위해 호 사모아에 방문하였다. 이들은 원양 어선원 묘지, 스타키스트 참치 공장을 방문하여 현황을 확인하고 현지 수산청 방문을 통한 양국 간 협력 사항을 확인하였다.

다. 어가 동향

어종	규격	가격(\$/톤)
황다랑어	라운드	1,650
눈다랑어	라운드	1,450
가다랑어	라운드	1,450

라. 유가 동향

공급	유종	가격(\$/gal)	조사일
클리퍼오일	디젤	3.01	'25.3.7

윤정환 뉴질랜드 명예해양수산물관



윤정환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어업 할당 시스템 개편

- 뉴질랜드 정부는 어업 할당량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하였다. 수산부 장관 셰인 존스는 이것이 1986년 할당량 시스템 도입 이후 가장 광범위하고 중요한 변화라고 설명하였다.
- 이번 개편안은 수산업 관련 결정을 더욱 효율적으로 내리고 예측할 수 있게 하는 것과, 어선에 설치된 카메라 영상 제삼자 접근 금지, 어획물 해상 폐기 절차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수산부 장관은 또한 이번 개편안이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일자리와 소득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나. 어가 동향

어종	규격	가격(\$/톤)
오징어	2L	6,350
	L	5,750
	M	5,250
	2M	4,600
	S	4,250
검정통삼치	2L	2,300
	L	2,200
	M	2,100
	S	2,000

다. 유가 동향

공급	유종	가격(\$/톤)	조사일
더니든	MGO	968	'25.3.7

이동춘 모리셔스 명예해양수산물관



이동춘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호주 정부와 수산자원 복원

- 모리셔스 정부는 호주 선샤인코스트 대학교와 협력하여 양식업을 통한 해삼 복원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모리셔스는 남획으로 인한 해삼 개체수 급감으로 2029년까지 해삼 조업을 금지하고 양식 해삼을 서식지로 방류하여 생태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



- 이 프로젝트는 호주 정부로부터 26만 7천 달러 (1,210만 루피)를 지원받아 2026년 7월까지 진행되며, 이를 통하여 양국 간 협력 강화 및 지속 가능 어업을 창출할 계획이다.

나. 인도와 해양 정보 협력 양해각서 체결

- 모리셔스는 인도와 해양 정보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최신 기술 접근성 강화, 데이터 관리 협력, 해양 서비스 역량 강화, 해양 관측 협력, 해양 환경 정보 공유 등이 포함되며 이를 통하여 양국 간 해양 정보 및 기술협력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 유가 동향

공급	유종	가격(\$/톤)	조사일
Engen	MGO	860	'25.3.10

나. 칠레, 전국 정전으로 수산업 경종

- 지난 2월 25일 오후 3시 15분, 칠레에서 발생한 전기 시스템 장애로 전국이 정전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칠레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가 치안 유지를 위하여 통행금지, 3천 명의 군인을 배치하였다.
- 정전으로 지상 및 지하 교통 중단, 식수 공급, 통신 마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수산업에서는 연어 등 양식장의 산소 공급 중단으로 양식산업의 경종을 울렸다. 전력 공급은 자정 무렵에 복구되었지만, 국가 전력 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다. 유가 동향

공급	유종	가격(\$/L)	조사일
Epsol YPF	MGO	1,370	'25.3.9

이상우 아르헨티나 명예해양수산관



이상우
명예해양수산관

가. 오징어 어업 동향

- 3월 11일 기준, 일렉스 오징어 어획량은 8만 173톤을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 7만 7,744톤 대비 3% 증가하였다. 이 중 70척 이상의 채낚기 선박은 6만 7,918톤을 어획하여 지난해 6만 4,285톤보다 8% 증가하였다.
- 참고로, 3월부터 지속된 강한 바람으로 대부분의 조업선은 피항으로 조업이 지체되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어획량 대부분은 2월 말까지의 어획이다. 어체 크기는 더블 S로 작다.

이윤홍 가나 명예해양수산관



이윤홍
명예해양수산관

가. 수산업 지속가능성 추구

- Emelia Arthur 수산부 장관은 EU의 예비 IUU 어업국 지정 문제 해결을 위하여 어업 규정을 국제 표준에 맞추고, IUU 어업 근절과 수산업 지속가능성을 위한 양식업 지원 강화를 위한 개혁을 추진할 예정임을 밝혔다.

나. 한국 수산업 분야 협력 강화

- KMI 한덕훈 박사 등 대외협력사업부는 수산부의



신임 장관(Emelia Arthur)을 예방하여 어획물 육상 처리 가공에 대한 어업 프로젝트 등 양국 간 어업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하였다.

나. 유가 동향

공급	유종	가격(\$/kl)	조사일
TWL Logistics	디젤	796	'25.3.8

〈 게재 순서: 명예해양수산물 성명 가나다순 〉

다. 어가 동향

어종	규격	가격(\$/톤)
황다랑어	10kg 초과	2,250
	10kg 이하	1,800
가다랑어	3.4kg 초과	1,500
	1.8~3.4kg	1,450
	1.5~1.8kg	1,300
	1.5kg 미만	1,150

라. 유가 동향

공급	유종	가격(\$/kl)	조사일
Goil	MGO	860	'25.2.28

정승화 파푸아뉴기니 명예해양수산물



정승화
명예해양수산물

가. 정부, 해외 기업 투자 독려

- PNG 수산청은 동원산업, Tri-Marine, Frabelle, RD, IFC 社 등을 초청하여 참치 육상 가공 증대를 위한 국가적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이와 관련 해외 기업의 가공 공장 투자 및 신규 건설 참여를 독려하였다.
- PNG 정부는 이러한 해외 기업의 투자를 통하여 자국 및 고용 창출과 세수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황태구이



❖ 이렇게 준비하세요

- 재료: 황태포 1개, 대파 흰쪽 1개 청고추 1개, 홍고추 1개, 쪽파 2줄기, 소금 약간, 통깨 약간
- 양념: 고추장 2큰술, 다진마늘 1큰술, 고춧가루 3큰술, 참기름 1큰술, 양조간장 2큰술, 설탕 4작은술, 통깨 1큰술

❖ 이렇게 만드세요

- ① 황태포 대가리, 지느러미, 꼬리를 자른 후 1시간 동안 소금물에 담가둔다.
- ② 대파, 청고추를 다진 후 홍고추와 쪽파는 송송 썬다.
- ③ 양념재료를 섞어 양념장을 만들고 다진 2를 넣어 섞는다.
- ④ 마른 팬에 손질한 황태를 앞뒤로 구운 후 3의 양념을 앞뒤로 세 번씩 발라가며 구워 준다.
- ⑤ 4의 황태를 6등분으로 자른 후 홍고추와 쪽파를 올리고 통깨를 뿌려 완성한다.



3월 싱가포르 MGO 가격, 평균 641달러

3월 12일 기준 634달러

3월 12일 기준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67.68달러, WTI 가격은 67.68달러, 브렌트유 가격은 70.95달러를 기록하였다.

3월 12일 기준 싱가포르 선박용 경유(MGO) 가격은 톤당 634달러로 2월 12일(694달러) 가격 대비 약 9% 하락하였다.

3월 평균(3.3~3.12) 가격은 641달러로 전월 평균인 689달러 대비 약 7% 하락하였다. 전년 3월 평균보다 20% 하락하였고, 전전년 3월과 비교하면 16%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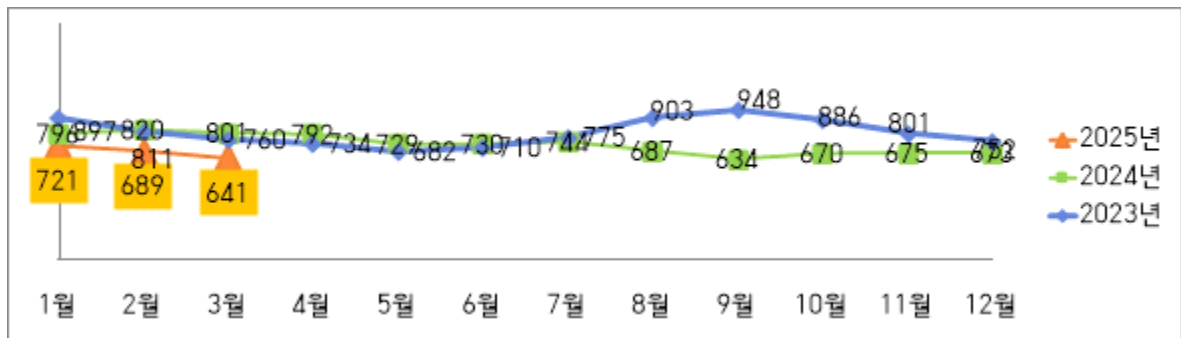
2025년 평균(1.2~3.12) 가격은 694달러로 전년

(1.2~12.31) 평균 대비 5% 하락하였고, 전전년 평균 대비 13%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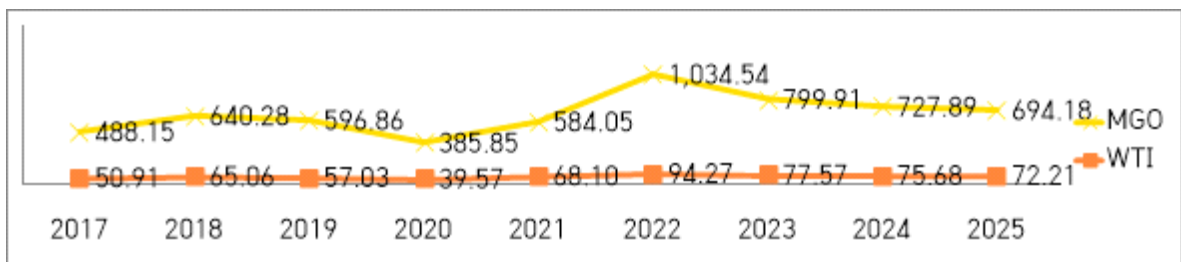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휴전 협상에 돌입하면서 하락세를 보이던 국제 유가는 3월 14일경 협상이 지연되고 러시아에 휴전안 수용을 압박하기 위한 추가 제재가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시적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나 지난 3월 16일 골드만삭스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수입품 관세 부과로 인한 성장률 둔화 우려 및 OPEC의 석유 증산 전망으로 인하여 향후 유가가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 연도별 월별 싱가포르 MGO 평균 가격 〉



〈 연도별 MGO, WTI 평균 가격 〉





ISSF, 2025년 RFMO별 우선 계획 발표

RFMO 준수 프로세스 강화 등 목적

국제수산물지속가능재단(이하, ISSF)은 다가올 연례 회의와 특별 세션을 앞두고 지역수산물관리기구(이하, RFMO)에 대한 입장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는 해당 RFMO 관할 수역 참치 어업의 지속 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한 과학자 및 전문가의 우려와 조언에 따른 것이다.

ISSF는 모든 RFMO에 준수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회원국에 대하여 엄격하고 투명한 책임성 평가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였다.

대형 연승선 대상 모니터링 범위를 높이기 위한 전자 모니터링 도입, 혼획 감소 조치, 상어 지느러미 채취 관련 규정 등은 ISSF가 지정한 특정 영역 외에도 4개 RFMO의 공통적인 우선순위이다.

〈IATTC〉

- 모든 열대 참치 및 기타 목표 어류 자원에 대한 포괄적이고 예방적인 수확 전략의 채택과 구현을 가속화

- 남태평양 참치 어획량을 통제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채택하고, WCPFC와 협력하여 전체 어족에 대한 관리 절차를 수립

ISSF는 또한 IATTC에 FAD 관리조치를 강화하고 전자 모니터링을 통하여 소형 선망어선에 대한 모니터링 범위를 확대할 것을 촉구하였다.

〈ICCAT〉

- 눈다랑어 및 황다랑어 어획량이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신규 참치 보존 조치를 완전히

이행할 것. 황다랑어 TAC를 완전히 할당할 것.

- 서부 대서양 가다랑어 관리 절차의 완전 채택을 마무리 지을 것. 눈다랑어, 황다랑어, 남대서양 날개다랑어, 동대서양 가다랑어 자원 및 기타 어류 자원에 대한 다중 자원 관리 절차의 개발을 가속화할 것.

항만국조치(Port State Measure)는 모범 사례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IOTC〉

- 황다랑어의 예방적이고 과학에 기반한 어획 한도를 채택하여 자원 회복을 유지할 것. 2024년 자원 평가에서 결정된 황다랑어 자원의 긍정적 상태를 유지하도록 IOTC 과학위원회에 과제를 부여할 것.

- 가다랑어와 눈다랑어 어획량이 '가다랑어 및 눈다랑어 관리 조치를 위한 어획통제전략 규정(Harvest Control Rule for skipjack and the bigeye Management Procedure)'에 의하여 정해진 어획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효과적인 조치를 시행할 것.

〈WCPFC〉

- 남태평양 날개다랑어 관리 조치 및 황다랑어 목표기준치(TRP)를 채택할 것. WCPFC는 눈다랑어와 황다랑어 관리 조치 계속을 계속해야 함.

- 생분해성 FAD로의 전환에 대한 기간을 설정하고 해상 전제 관련 조치를 강화할 것.

* 출처: Atuna, 2025년 2월 17일자



중서부태평양 1월 어획량 약 12만 톤

1월 일간 가다랑어 어획량 6% 감소

중서부태평양 1월 어획량은 어업 노력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다소 감소하였다. 조업은 주로 중서부태평양 서부 및 중부 수역에서 진행되었다.

나우루협정당사국(이하, PNA) 수역 및 공해에서의 1월 전체 어업 노력량은 전월 대비 5% 증가한 3,998일이다. 이 중 PNA 수역에서의 어업 노력량은 3,742일로, 전월 대비 5% 증가하였다.

파푸아뉴기니(이하, PNG) 수역에서의 어업 노력량은 1,520일로, 전체 어업 노력량의 38%를 차지하였다. 솔로몬제도 수역에서의 어업 노력량은 12월 대비 다소 증가하였고, 비중은 전체의 18%를 차지하였다. 나우루, 미크로네시아, 투발루에서의 어업 노력량도 전월 대비 증가하였다. 공해에서의 어업 노력량 비중은 12월에 전체의 10%였으나, 1월에는 전체의 7%(278일)로 비중이 감소하였다.

1월 동안의 다랑어류 어획량은 12만 1,873톤으로, 전월 대비 1% 감소하였다. 가다랑어 어획량은 9만 1,575톤으로 전월 대비 2% 감소하였다. 대형 황다랑어 어획량은 12% 감소한 1만 6,777톤이었다. 대형 눈다랑어, 소형 눈다랑어, 소형 황다랑어의 어획량은 각각 2,055톤(94% 증가), 2,892톤(42% 증가), 8,531톤(8% 증가)을 기록하였다.

어업 노력량이 증가한 PNG와 솔로몬제도에서 어획량도 증가하였다. PNG에서의 어획량은 4만 5,093톤(전체의 37%), 솔로몬제도에서의 어획량은 2만 718톤(17%)이다. 나우루에서의 어획량 또한 1만 3,406톤으로 증가하였다. 미크로네시아와 투발루에서 어획량은 증가하였고, 공해에서의 어획량은

9,800톤으로 전월과 거의 비슷하였다. 키리바시 수역에서는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1만 5,843톤을 기록하였다. 팔라우에서는 어획량 보고가 없었다.

1월 중서부태평양에서의 가다랑어 일일 어획량은 전월 대비 6% 감소하였다. 그러나 전체 가다랑어 어획량은 2%만 하락하였다. NA 수역과 공해에서의 전체 일일 평균 어획량은 31톤으로, 2024년 가장 낮은 수준이었던 12월보다도 6% 감소하였다.

가장 많은 일일 어획량을 기록한 곳은 나우루 EEZ(43톤, 전월 대비 6% 증가)였다. 그다음은 일일 34톤을 기록한 투발루 수역으로, 전월 대비 21% 증가하였다. 솔로몬제도 수역에서는 전월 대비 12% 증가한 일일 30톤, 공해에서는 전월 대비 30% 증가한 36톤을 기록하였다.

키리바시 수역에서의 일일 어획량은 29톤으로 전월 수준을 유지하였다. 파푸아뉴기니에서의 일일 어획량은 30톤으로 전월 대비 감소하였으나, 전체 어획량은 여전히 가장 많은 수준인 4만 5,093톤이었다.

가다랑어 어획량은 좋지 못하였다. 일일 어획량은 전월 대비 6% 감소한 23톤으로, 2020~2024년의 1월 일일 어획량 평균 대비 19%나 적었다.

대형 황다랑어 일일 어획량은 4.2톤으로 전월 대비 16% 감소하였다. 대형 눈다랑어와 소형 눈다랑어, 소형 황다랑어의 일일 어획량은 각각 0.5톤, 0.7톤, 2.1톤으로 모두 12월 대비 증가하였다.

* 출처: Atuna, 2025년 2월 20일자



동부태평양 2024년 어획량 대폭 증가

약 97만 톤...가다랑어 어획량 약 62만 톤

동부태평양의 2024년 다랑어류 어획량은 대단히 많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가다랑어 어획량은 2023년 대비 60%나 증가하였는데, 특히 에콰도르 선단의 어획량은 역대 최대치였다.

2024년 동부태평양에서의 다랑어류 및 다랑어 유사종의 총어획량은 96만 8,923톤으로, 2023년도 대비 31% 증가하였다. 특히 이 중 가다랑어 어획량은 62만 3,650톤을 기록하였다. 1~3분기 동안의 어획량은 77만 6,668톤으로, 이 중 49만 3,510톤이 가다랑어였다.

가다랑어의 연간 어획량은 2008년부터 2014년 동안 23만 5,000톤에서 30만 톤으로 증가하였고, 2015년부터 30만 톤을 넘어섰다. 이후 2022년까지 가다랑어 연간 어획량은 평균 33만 톤 수준이었다. 2023년에도 많은 어획량을 기록하였으나, 2024년 수준의 어획량은 유례가 없는 수준이었다.

황다랑어 어획량은 30만 1,666톤으로 2023년 수치에서 거의 변동이 없었다. 눈다랑어 어획량은 3만 1,672톤으로 2023년 대비 약 7% 감소하였다. 참다랑어 어획량은 3,533톤으로 4% 증가하였다. 다랑어류 유사종에는 점다랑어, 고등어류, 상어류 등이 포함된다. 점다랑어 어획량은 2024년에 5,365톤으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다른 어종은 감소하였고 그 결과 2024년 유사종 전체 어획량은 7% 감소한 8,402톤을 기록하였다.

에콰도르 선단의 2024년 어획량은 기록적 수준인 42만 2,006톤으로, 특히 가다랑어 어획량은 2023년 대비 51%나 증가한 35만 490톤이었다.

에콰도르의 한 소식통은 “2024년은 매우 예외적인 한 해였고, 대부분의 업체는 어획량 증가 덕분에 매출 또한 증가하였다.”라고 말하였다.

에콰도르는 어획량 증가에 힘입어 제품 수출 또한 증가시켰다. 2024년 1~3분기 동안 에콰도르의 참치 통조림 수출량은 8만 7,401톤으로, 전년도 대비 35% 증가하였다. EU행 자숙 로인 수출량도 증가하였으나 상온보관 제품 수출량 수준은 아니었다.

에콰도르는 여전히 EU로부터 옐로카드를 받은 상태이다. 에콰도르는 옐로카드 해제를 위하여 4개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참치 화물의 하역 및 보관 과정을 감사하는 것과 참치 가공 공장을 모니터링하고 통제하는 것이 포함된다. 브루노 레오네 에콰도르 국립수산회의소(CNP) 회장은 하역 및 참치 선단에 대한 감사는 완료하는 데 최소 3년이 필요한 매우 힘든 작업이 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다른 동부태평양 선단도 2024년에 좋은 어획량을 기록하였다. 주로 황다랑어를 어획하는 멕시코 선단은 2023년 대비 10% 증가한 15만 7,431톤의 어획량을 기록하였다. 멕시코의 황다랑어 어획량은 증가하였고, 가다랑어 어획량도 소폭 증가하였다.

파나마 선단은 가다랑어 어획량 증가에 힘입어 총 어획량이 52% 증가하였다. 이들의 어획량은 2024년에 9만 9,063톤을 기록하였으나 전년도에는 5만 3,444톤에 불과하였다. ‘기타’로 분류된 국가의 어획량도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미국 선단의 가다랑어 어획량은 2배 증가한 4만 9,943톤이었다.

* 출처: Atuna, 2025년 2월 27일자



에콰도르 24년 동부태평양 어획량, 기록적 수준 전년도 대비 36% 증가

동부태평양에서의 2024년 어획량이 크게 증가하고 대다수 선단의 어획량이 증가한 가운데, 에콰도르 선단의 어획이 가장 성공적이었고, 가다랑어 어획량이 특히 증가하였다.

2024년 동부태평양 선단의 다랑어류 및 다랑어 유사 어종 어획량은 총 96만 8,923톤으로, 전년도 대비 31% 증가하였다. Atuna에 따르면 이는 역대 최대 어획량이며, 특히 가다랑어 어획량 증가에 영향을 받았다.

에콰도르 선단의 2024년 어획량은 42만 2,006톤으로, 동부태평양 전체 어획량의 44%이다. 에콰도르의 지난 10년간 연간 어획량은 2023년과 2024년을 제외하면 큰 폭의 변화가 없었다. 2015년 에콰도르의 연간 어획량은 30만 톤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었으

나, 2023년에 30만 톤을 넘어섰고 2024년에는 그 이상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에콰도르의 2024년 가다랑어 어획량은 예외적으로 많은 수준인 35만 490톤이었다. 이는 2023년과 비교하면 51%나 증가한 수치이다. 2023년의 가다랑어 어획량도 전년도 대비 크게 증가하였으나, 2024년의 증가세는 그 이상이였다. 이러한 어획량 증가는 EU 시장으로의 참치 통조림 수출 증가로 이어졌다.

황다랑어 어획량은 4만 9,867톤으로 전년도 대비 10% 감소하였고, 눈다랑어 어획량은 1만 7,218톤으로 8% 감소하였다. 가다랑어, 황다랑어, 눈다랑어 이외의 다랑어류 및 다랑어 유사종의 어획량은 8% 감소하였다.

* 출처: Atuna, 2025년 3월 11일자

Ecuadorian Fleet's Exceptional Catches In 2024

ECUADOR: Tuna Catches In EPO Full Year (In M/T)

	2022	2023	2024	Diff. %
Skipjack	177,630	231,478	350,490	51%
Yellowfin	58,600	55,579	49,867	-10%
Bigeye	16,791	18,616	17,218	-8%
Others	5,728	4,794	4,431	-8%
Grand Total	258,789	310,468	422,006	36%

Source: IATTC

Powered By Atuna Analyst

< 2022~2024년 에콰도르 선단 동부태평양 어종별 어획량 >



日, 지중해산 양식 참다랑어 필렛 강세

日 냉동 눈다랑어 수입 가격 회복

일본 재무성 무역통계에 따르면, 다랑어류 1월 수입 실적은 선어·냉장 수입량 209톤(전년도 동월 대비 10% 증가), 수입액 3억 6,200만 엔(2% 증가), 냉동 1만 4,203톤(19% 증가), 194억 1,700만 엔(57% 증가), 가공품 4,032톤(8% 증가), 35억 6,600만 엔(15% 증가)이었다.

냉동 제품은 지중해산 양식 참다랑어 필렛의 변화가 두드러졌다. kg당 단가가 2,612엔(29% 상승)으로 급등한 데다가 수량은 전년도 동월 대비 2.3배에 해당하는 4,330톤으로 급증하면서, 수입액 총액이 113억 1,100만 엔으로 급증하였다.

일본의 양식 참다랑어 필렛 매입 경쟁국인 한국의 경우, 수입량 최대치를 기록한 2023년의 재고의 영향으로 최근에는 매입에 소극적이었으나 현지 재고가 일단락되면서 매입 의욕이 증가한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이전과 같은 기세는 아니다. 중국은 시설등록 등의 이유로 인하여 직접 매입은 한정적인 상태이다.

생산지인 몰타 등의 상황은 대조적이다. 작년에 발생한 대량 폐사 및 원어의 소형화로 인하여, 총생산량은 전년도 대비 감소가 예상된다. 1월 양식 참다랑어 수입량이 증가한 원인은, 주로 일본 현지 무역회사들이 산지 가격(浜値, 양륙 또는 하역한 항구에서의 가격)의 상승을 염두에 두고 비교적 빠른 시점에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 등이 지목된다.

1월 가격의 경우, 현지 양식업체의 타격을 억제하기

위하여 “전년 대비 30%의 가격 상승은 불가피하다”라는 관계자의 예상대로 흘러갔다.

냉동 눈다랑어 GG(아가미, 내장 제거)의 kg당 단가 평균은 705엔(8% 하락)으로, 전월 가격인 685엔 대비 상승하였다. 수량이 최다인 대만산(1.502톤)도 706엔(10% 하락)으로 전월 가격인 685엔 대비 상승하면서, 지난해 7월 이후 처음으로 kg당 700엔대 가격을 기록하였다.

시세의 지표가 되는 인도양 대만 선박의 일선매입(一船買い, 특정 선박의 선주와 직접 협상하여 해당 선박의 어획물을 일정한 가격에 매입하는 방식) 가격이 지난해 12월, 약 반년 만에 상향 조정되면서 그 영향이 빠르게 나타난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소비가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이다. 연말 판매 경쟁의 경우, 관계자들은 ‘매출 증가가 부족하였다’라고 입을 모았다. 입고량이 늘어난 지중해 연안산 양식 참다랑어 필렛의 영향도 있어, 초저온 냉동고의 공간 부족은 여전한 상태였기 때문에, 새로운 물량을 소화하지 못하였다.

선어 제품의 경우, 연초 특유의 물량 부족 등으로 인하여 인도네시아산 눈다랑어 수입이 43톤(48% 감소)으로 반감하였다. 다만 멕시코산 양식 참다랑어 수입량은 121톤(181% 증가)으로 신선 참다랑어 수입량의 60% 정도를 차지하면서 호조를 보였다.

*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5년 3월 6일자



日 2025년 1월 냉동 다랑어류 수입 통계 발표

한국산 눈다랑어 116톤 수입

〈 2025년 1월 일본 냉동 다랑어류 수입 통계 〉

(단위: 톤)

어종	국가	2024년 1월	2025년 1월
날개다랑어	한국	25	43
	대만	330	127
	바누아투	-	-
	기타	109	287
	소계	464	458
황다랑어	한국	261	131
	중국	425	259
	대만	1,798	767
	필리핀	-	-
	인도네시아	-	-
	미국	-	-
	바누아투	36	9
	피지	-	-
	카리바시	-	-
	마셜제도	-	-
	기타	1,359	1,128
	소계	2,869	2,296
눈다랑어	한국	259	116
	중국	202	671
	대만	1,928	1,502
	필리핀	-	-
	인도네시아	-	-
	세이셸	470	1,253
	바누아투	52	71
	기타	110	138
	소계	3,020	3,750
남방참다랑어	한국	-	-
	대만	95	122
	호주	-	-
	소계	95	122

*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5년 3월 6일자



태국 2024년 참치 원어 수입량 역대 최다 수준

총 80만 9,041톤 수입

태국의 2024년 다랑어류 원어 수입량은 80만 9,041톤이다. 이는 전년도 대비 26% 증가한 수치이며, 2020년의 수입량을 제치고 역대 최다 수준이다. 중서부태평양 가다랑어의 공급량 증대로 인하여 가공 업체들은 재고를 채우고 최종 제품 수요 증대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더 많은 원어를 사들였다. 2024년 태국 참치 통조림 수출량은 32% 증가하였다.

대만산 원어 수입량은 전년도 대비 3만 9,244톤이나 증가한 15만 995톤이다. 이 원어의 대부분은 가다랑어와 날개다랑어이며, 평균 가격은 전년도 대비 하락하였다. 미크로네시아산의 수입량은 5만 8,812톤이나 증가한 12만 4,165톤으로, 태국의 주요 공급국 2위 자리를 회복하였다.

한국산의 수입량은 10만 7,570톤으로 전년도 대비 56% 증가하였다. 한국, 나우루, 일본산의 수입량은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전년도 대비 증가하였다. 나우루산의 수입량은 12% 증가한 9만 1,397톤이다. 일본의 가다랑어 어획량은 증가하였으나 방콕으로의 날개다랑어 수출량은 감소하였고 그 결과 태국의 일본산 참치 원어 수입량은 전년도 대비 1만 1,871톤 증가한 3만 2,452톤을 기록하였다.

인도네시아산 수입량이 증가하면서 인도양산 원어의 공급 감소를 중서부태평양산 공급 증가로 상쇄하였다. 인도양산의 공급이 감소하면서 몰디브는 태국에 대한 주요 10개 공급국의 자리에서 내려왔다.

* 출처: Atuna, 2025년 2월 24일자

PNA 1월 전재량, 전월 수준 유지

약 6만 9,600톤 전재

지난 1월 동안 PNA에서의 전재량은 총 6만 9,600톤으로, 전월 대비 1% 감소하였다. 총 전재 전수는 111건이다. 대부분의 운반선은 방콕과 제너럴산토스의 가공 공장으로 향하였다. 물량의 대부분은 가다랑어였고, 대형 및 소형 황다랑어가 일부분을 차지하였다.

대부분의 어획물이 PNG 수역에서 어획되었기 때문에, 마당, 라바울, 라에 등에서 많은 양이 전재되었다. PNG에서의 전재량은 2만 1,576톤으로, 전체 전재량의 31%를 차지하였다. PNG 항구에서

는 지난 수개월간 많은 양이 전재되었다.

미크로네시아에서는 1만 8,096톤(전체의 26%)이 전재되었고, 마셜제도에서는 1만 2,528톤(18%)이 전재되었다. 마셜제도는 2024년 전재량이 급감하였으나 올해 들어 좋은 시작을 보였다. 키리바시와 솔로몬제도는 각각 전체 전재량의 13%, 12%를 차지하였다. 나우루, 투발루에서는 12월과 마찬가지로 1월에도 전재 보고가 없었다.

* 출처: Atuna, 2025년 2월 24일자



美 2024년 참치 통조림 수입, 전년 대비 다소 증가 태국산 수입 11% 증가

미국 해양대기청(이하, NOAA)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의 2024년 참치 통조림 수입량은 13만 4,514톤으로, 지난 5년간 세 번째로 많았다. 2023년 수입량에 비하면 9% 증가하였다. 평균 수입 단가는 톤당 4,483달러로, 전년도 대비 6% 하락하였다.

지난 5년간 최대 수입량을 기록한 연도는 팬데믹으로 인하여 사재기 열풍이 불었던 2020년으로, 평균 단가는 지난 5년간 최저치였다.

태국산 수입량은 11% 증가한 7만 6,789톤이었다. 이미 1~9월에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고, 10~12월에도 2만 2,563톤을 기록하였다. 태국산의 평균 수입 단가는 7% 하락한 톤당 4,348달러였다.

멕시코산의 수입량은 4% 증가한 1만 6,044톤이었고, 가격은 3% 상승한 톤당 4,556달러였다.

베트남산 수입량은 1만 5,955톤으로, 2023년도

대비 23%나 증가하였다. 지난 1월 베트남 수산물 수출업자 및 생산자 협회(VASEP)는 전 세계적인 상온 보관 제품 수요 증가에 힘입어 참치 매출이 9억 8,900만 달러에 달했다고 발표하였다. 미국은 베트남의 최대 참치 통조림 수출 시장이었다.

에콰도르산의 지난 2년간 수입량은 감소하였다. 2024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의 수입량은 817톤에 그쳤고, 4분기에는 341톤에 불과하였다. 일한 감소의 원인은 첫째로 톤당 5,193달러의 높은 가격이었고, 두 번째는 에콰도르가 주요 시장인 EU로의 수출을 크게 증대시켰기 때문이다.

미국의 필리핀산 참치 통조림 수입량은 수년에 걸쳐 증가하였다. 2024년 동안 필리핀산의 수입량은 10% 증가한 4,156톤이었다.

* 출처: Atuna, 2025년 3월 3일자

태국의 2024년 소규모 수입국 대상 통조림 수출 급증 전년도 대비 약 25% 증가

2024년 동안 태국 통조림 제조업체의 소규모 수입국으로의 수출은 2023년 동기 대비 약 25% 증가하였다. 특히, 태국 통조림의 주요 구매자 중 하나로 성장한 중동 국가와의 무역이 증가하였다.

태국은 2024년에 소규모 수입국들을 대상으로 10만 5,377톤을 수출하였다. 이는 전년 대비 2만 1,390톤 증가한 수치이다. 2024년 말 방콕 가다랑어 원어 가격 하락이 수출에 확연한 영향을 미쳤다. 평균 수출 단가는 톤당 4,116달러로 전년도 대비

2% 하락한 수치이다.

레바논, 요르단, 이라크, 오만, 터키, 시리아와 같은 소규모 중동 수입국의 태국산 통조림 수입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고, 쿠웨이트의 수입만이 4% 감소하였다. 소규모 수입국 중 중동 국가의 수입량은 3만 2,981톤으로, 이는 주요 중동 수입국의 2023년 수입량보다도 1만 9,000톤이나 많다.

* 출처: Atuna, 2025년 2월 12일자



美 참치 파우치 시장 성장 둔화

2024년 수입량, 전년도 대비 2% 성장

미국은 2024년 5만 2,622톤의 참치 파우치를 수입하였다. 이는 전년도 대비 2% 증가한 수치이다. 평균 수입 가격은 5,321달러로, 모든 주요 공급국에서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2023년 대비 약 11% 하락하였다.

2008년부터 2022년까지 성장세였던 미국 참치 파우치 시장은 2022년부터 일정 수준을 유지하였다. 미국 파우치 시장의 성장세를 주도한 것은 스타키스트였다. 스타키스트의 2008년 파우치 매출은 약 200만 건이었으나, 2022년에는 950만 건으로 증가하였다. 미국 소비자들이 파우치를 선호한 주요 원인은 간편함 때문이었고, 이에 따라 파우치는 미국 성장에서 크게 성공하였다. 범블비와 자체 라벨 파우치 제품도 미국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태국은 미국의 최대 파우치 공급국 지위를 지켰다. 태국산은 평균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인 톤당 5,089달러에 2만 2,662톤이 수입되었다. 태국의

2024년 기록적인 원어 수입량은 통조림과 파우치 등 제품의 생산량 및 수출량에도 영향을 미쳤다.

에콰도르산의 수입량은 전년도 대비 단 93톤 증가한 1만 6,475톤이다. 평균 가격은 톤당 5,698달러이며 주로 가다랑어와 프리미엄 황다랑어 제품을 생산하는 스타키스트 과야킬 공장의 파우치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동부태평양 어획량은 2024년 급증하였으나, 에콰도르의 미국행 수출량은 증가하지 않았다.

스타키스트 공장이 위치한 세네갈산의 평균 가격은 톤당 5,500달러로 전년도 대비 10% 하락하였고, 수입량은 전년 대비 28% 적은 9,661톤이다.

베트남산의 수입량은 전년 대비 144%나 증가한 1,266톤이며, 가격은 전년도 대비 22% 하락한 톤당 5,888달러이다. 베트남산은 전년도에 비하여 황다랑어보다 가다랑어의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추측된다.

* 출처: Atuna, 2025년 3월 6일자

캐나다, MSC 참치 매출 급증

판매량 600% 증가 및 MSC 제품 30개 추가 예정

캐나다의 해양관리협의회(MSC) 인증 지속가능 참치 판매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년 동안 캐나다에서 판매된 MSC 인증 참치의 양은 2021/22년 1,907톤에서 2023/24년 1만 3,000톤 이상으로 582% 증가하였다.

특히, 이 참치의 99.5%가 통조림 형태로 판매되었으며, 2023/24년에는 MSC 블루 피쉬 라벨이 부착된 9,350만 캔의 참치가 구매되었다.

현재 캐나다 주요 식료품점에서 81종의 MSC 인증 참치 통조림 제품이 판매되고 있으며, 2025년에는 30개 제품이 추가로 출시될 예정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참치는 현재 캐나다에서 중량 기준으로 판매되는 모든 MSC 인증 수산물의 절반 이상인 60%를 차지하며, 캐나다는 MSC 인증 참치의 세계 5대 시장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였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5년 2월 25일자



EJF, 인도양 中 연승선 북한 선원 인권침해 폭로 해당 선박 어획물 美·EU 등 유입 가능성 존재

최근 국제 NGO 환경정의재단(이하, EJF)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선원들이 남서 인도양에서 조업하는 중국 참치 연승선단에서 가혹한 환경의 강제 노동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JF는 이번에 폭로된 내용이 “지금까지 세계 수산업에서 관측된 노동 학대 문제보다도 훨씬 큰 규모”라고 주장하였다.

지난 2월 23일 발표된 EJF의 보고서는 중국 연승선단의 인권침해 및 IUU 어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해당 선단의 EU, 미국, 아시아 시장과의 공급망 연결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선박명은 공개되지 않았다.

EJF는 북한 선원이 잡은 어획물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선사들이 북한 선원의 존재 여부를 은폐하였다고 말하였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핵, 화학, 생물학 무기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제재 결의안을 통하여, 회원국의 북한 노동력 사용을 제재하기로 결정한바 있다.

2020년, EJF는 중국 선사인 다렌오션 참치 연승선에서 발생한 인도네시아 선원의 사망 사건에 관한 보고서에서, 이들이 매우 가혹한 노동 환경에서 일했음을 폭로하였다. 해당 보고서는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고, 결국 인도네시아는 다렌오션 선박에 승선한 자국민을 모두 귀국시켰다. 이후 인도네시아는 해외 선박에 승선하는 자국 선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더욱 엄격한 법을 적용하게 되었다.

최근의 보고서에서, EJF 조사 담당자들은 2019년 3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인도양 연승선 12척에 승선했던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선원을 대상으로 인터

뷰를 진행하였다. 이들 중 19명은 북한 선원이 승선했었다고 응답하였다. EJF 조사팀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사진과 영상 자료를 수집하였다.

인터뷰 대상자 중 한 명은 북한 선원들이 가족들과 통화하기 위한 휴대전화를 받지 못하였고, 하선도 허가받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증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선원에 대한 대우는 더욱 심각하였다. 이들은 근무시간 동안 앓는 것도 허락받지 못하였다.

최신 조사에 따르면, 북한 선원들은 입항 전 해상에서 다른 선박으로 이동하였기 때문에 이들의 존재 여부가 항만 당국 측에 드러나지 않았다.

해당 연승선 선장과 선주 측은 북한 선원 노동이 금지되었음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보고서가 수집한 증거에 따르면 다수의 북한 선원은 귀국하지 못하고 선상에서 수년간 일한 것으로 보이며(일부는 약 10년), 일부의 경우 육지에도 돌아가지 못한 것으로 추측된다.

인권침해 외에, 해당 선박에서는 IUU 혐의도 있다. EJF에 따르면 해당 선박에서는 상어 지느러미 채취, 금지 어종 어업, 돌고래 등 해양 대형 생물 포획이 확인되었다. 북한 선원 인권침해뿐만 아니라, 선원들은 신체적 학대, 언어적 학대, 과도한 초과 근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선박에서 어획된 참치 및 기타 수산물은 미국, EU, 아시아 등의 시장에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EU는 EU 식품보건의안전관리기구(일명 DG Sante)를 통하여, EU 시장 수출이 허가된 비(非) EU 국적



판매주체의 목록을 발표한다. EIJ가 보고서에서 언급한 연승선 12척 중 4척이 해당 목록에 등재되어 있다. 해당 명단의 등재 여부는 해당 선박의 어획물이 EU 시장에 유입되었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암시할 수 있다.

EIJ는 해당 선박들이 어획한 참치가 영국에 유입되었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영국 정부는 영국으로 동물 및 동물 제품을 수출하도록 승인된 판매주체의 목록을 발표한다. 그런데 해당 목록의 승인

번호가 EU 목록과 중복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영국의 목록은 EU의 목록을 그대로 인용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해당 어획물은 북한 선원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12척의 연승선에서 리퍼 운반선으로 운송된 후 일본, 대만, 한국 등 아시아 주요 시장으로 이동하였다.

EIJ는 보고서에서 확인된 문제들의 원인이 어업 관리 및 항만 통제의 부실함이라고 지적하였다.

* 출처: Atuna, 2025년 3월 4일자

中, 참치 풍부한 쿡제도에 전략적 진출?

쿡제도-중국 간 다분야 전략 동반관계 체결

마크 브라운 쿡제도 총리는 최근 중국과 함께 다양한 협정을 체결하기로 결정하면서 동맹국인 뉴질랜드와 호주를 불안한 위치에 놓이게 했다. 브라운 총리는 이번 협약이 동맹국들의 관심사가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이러한 우려를 부인하였다.

그러나 쿡제도 진출에 대한 중국의 발판이 될 이번 결정이 참치가 풍부한 쿡제도 EEZ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브라운 총리는 지난 2월 베이징을 방문하여 중국과 어업, 심해 탐사, 교육, 경제, 인프라, 재난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였다. 결과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사안은 최근 쿡제도 의회에서 주요 쟁점으로 논의되었다. 브라운 총리는 의회에서 “우리 국민에게 이익이 될 모든 기회를 찾는 것이 내 책무”라고 주장하였다. 쿡제도 의회에서 브라운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이 제기되었으나 총리는 직을 유지하였다. 이번 중국과의 협정으로 인하여 쿡제도 내에서도 반대 시위가 벌어졌다.

이 파트너십의 논란이 된 부분 중 하나는 해저 광물 탐사를 목적으로 2월 22일에 체결된 5년 계약이었다. 브라운 총리는 해저 광물 부문이 “엄격한 규제 감독”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중국은 여러 태평양 도서국에서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다. 솔로몬제도는 이미 중국과 여러 협정을 체결하였고, 중국 국영어업공사(CNFC)가 자국의 “상호 관심 분야”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솔로몬제도는 2024년 친중 성향의 제레미아 마넬레 총리가 선출되면서 서방 국가들의 우려를 더욱 가중하였다. 중국과 키리바시는 또한 '블루 동반관계'를 강화하고 해양 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도널드 트럼프 신임 미국 대통령의 반(反) 기후 의제는 태평양 도서국 지도자들과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갈등은 중국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 출처: Atuna, 2025년 3월 4일자



팔라우, 지역 참치 가공업에 지지 표명

태평양 도서국의 참치 산업 경제 모델 재평가 강조

수란젤 웹스 주니어 팔라우 대통령은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태평양에서 잡히는 모든 참치를 역 내에서 가공할 것을 촉구하였다.

지난주 솔로몬제도 수도의 호니아라 정상회의의 연설에서 팔라우 대통령은 지역 참치 가공을 선도하는 이스트 뉴브리튼 이니셔티브(ENBi)를 높이 평가하였다.

“이스트 뉴브리튼 이니셔티브(ENBi)를 주도하고 있는 파푸아뉴기니(PNG)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우리의 생계는 건강한 바다에 달려 있다.”라고 그는 말하였다. ENBi는 태평양 도서국들이 전략적 진입점을 파악하고, 제후를 형성하여 상업용 참치 사업과 지원 산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플랫폼이다. PNG가 발의하였으며, 2023년 9월 PNG 동부 뉴브리튼주 코코포에서 열린 태평양 도서국 포럼 수산 장관 회의에서 채택되었다.

팔라우 대통령은 블루 태평양 지역(Blue Pacific Region, 도서국과 바다를 포함하는 남태평양의 지리적 지역을 의미하며, 2017년 태평양 도서국 지도자들이 처음 사용한 용어)이 식량 안보와 경제 성장에 중요한 자원인 참치 어업의 세계 최대 본거지라고 강조하였다.

대통령은 참치 어업의 라이선스 수익이 연간 6,000만 달러에서 5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지만, 이는 소

매 매출 가치에 비교하면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였다.

“블루 태평양 지역은 세계 최대 참치 어업을 지원한다. 참치 어업은 식량과 경제적 수익의 중요한 원천이 되고 있다. 참치 어업의 라이선스 수익이 6,000만 달러에서 5억 달러로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우리 수역에서 잡힌 참치로부터 27억 달러가 창출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 몫은 kg당 0.36달러에 불과하다.”

“우리 몫이 큰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아마존(Amazon.com)에서 판매되는 참치 통조림 1캔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1캔당 우리 어업의 몫은 단 0.06달러로, 소매 매출액의 3%에 불과하다. 안타깝게도 팔라우에서는 자원 보호에 지출되는 비용이 수익을 넘어선다.”라고 대통령은 설명하였다.

대통령은 태평양 참치 어업의 경제 모델 재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우리는 참치를 계속 어획해야 하지만, 우리 수역에서 잡히는 참치로부터 더 많은 수익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우리가 얻는 수익은 전세계 국가들이 우리의 참치를 통하여 이익을 얻는 것을 허용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러한 경제 구조는 비합리적이다.”

* 출처: SolomonstarNews, 2025년 3월 6일자



통조림 참치, 강력한 성장 예상

편리하고 영양이 풍부한 식품에 대한 수요 증가

글로벌 참치 통조림 시장은 2025년 111억 5,840만 달러에서 2035년 178억 3,260만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 기간 동안 연평균 4.8%의 상당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성장은 편리하고 단백질이 풍부하며 유통기한이 긴 식품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가 진화함에 따라 가속화되고 있다. 참치 소비와 관련된 건강상의 이점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포장 및 가공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참치 산업은 크게 확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포장 및 즉석식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참치 통조림 시장의 상승세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단백질 함량이 높고 오메가-3 지방산과 필수 비타민이 풍부한 참치 통조림은 건강하고 편리한 식사 해결에 대한 소비자 수요 증가와 일치한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생활양식과 노동 인구의 증가로 인해 즉석 조리 식품과 즉석 섭취 식품의 소비가 증가하여 시장 성장을 뒷받침한다. 또한 책임 있는 어업 관행과 친환경 포장과 같은 수산물 산업의 지속 가능성 이니셔티브는 시장 역학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치 통조림 소비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이유

는 건강한 단백질 공급원이라는 사실과 함께 합리적인 가격, 냉장 보관이 필요 없어 보관하기 쉽기 때문이다. 미국, 유럽 연합, 일본이 전 세계에서 참치 통조림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국가이다. 중동 국가와 라틴 아메리카의 참치 통조림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참치 통조림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식품 중 하나인 참치 통조림, 특히 라이트 참치 통조림은 평균적으로 1년에 약 14파운드(6.4kg)의 참치 통조림을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소비자들이 가장 자주 먹는 참치 통조림은 두툼하고 담백한 살코기로, 미국 참치 통조림 소비량의 연간 75~80%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조사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 4명 중 1명은 일주일에 한 번 참치 통조림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며, 여름철에 더 많이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국에서는 참치 통조림의 약 50%가 샌드위치 형태로 섭취되며, 샐러드는 22%, 캐서롤은 15.5%를 차지한다.

* 출처: YahooFinance, 2025년 3월 10일자



대만 오징어참치 원양어업, 중대한 기로에 직면 경제적 생존과 국제사회 지속가능 노력 요구 간 균형 필요

최근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대만 원양어업계는 경제적 생존 가능성과 국제사회의 지속가능 요구 사이에 균형을 맞춰야 하는 기로에 직면하였다.

인권 관련 공급망 조사, 교육 및 컨설턴트 기업인 'Humanity Research Consultancy'는 최근 발표한 "대만 원양 선사 개요"라는 보고서에서 '대만 원양어선 선사가 대만 원양어업계에서 수행하는 역할 탐구'에 초점을 맞추며 대만 원양어업을 분석하였다.

대만 원양어업 부문은 참치 연승선(전체 선박의 86.5%, 전체 인력의 67.76%)과 오징어채낚기선(전체 선박의 9.3%, 전체 인력의 26.2%)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남대서양, 아르헨티나 연근해 외곽, 북서태평양 등지에서 조업한다.

보고서는 과거에 대만 경제의 한 축을 차지했던 대만 원양선단이 현재 해양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국제 규정의 강화로 인하여 중대한 변화를 겪는 중이라고 지적하였다.

과거에 대만 정부는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로 대만 원양 부문을 지원하였고, 이에 힘입어 대만 선단은 세계 최대 선단 중 하나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국제 규제의 강화로 인하여 대만 선단의 어획량에 제약이 가해지자 대만 정부는 산업 확장 지원에서 행위자들이 이 부문에서 철수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하였다.

이러한 전환은 선사, 특히 소규모 가족형 기업을 운영하는 선사에게 어려운 문제였다. 많은 선사가 늘어나는 부채와 감소한 쿼터로 인한 재정적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대만 정부는 선단 감축을 목적으로 매입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선사가 선박을 해체하도록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인센티브는 기존 부채를 충당하거나 선박의 실제 가치를 충족하기에 충분치 못하였기에, 여러 선사가 재정적 이유로 사업을 정리할 수 없게 만들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급망의 선사들은 어획물을 어디서 어떻게 판매할 것인지에 대한 구조적 제약에 직면하여 있다.

"선사들은 최대 시장인 미국과 EU에 접근 시 배타적 무역 장벽에 부딪힌다. 그 결과, 이들은 주로 높은 가치의 참치를 일본에 판매하거나, 혹은 중간 구매자 역할을 하는 대기업에 판매한다. 동시에 일본의 경제 상황으로 인하여 고급 참치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였다."라고 보고서는 언급하였다.

보고서는 또한 구매자들이 "(회사의 개수는 감소하고 규모는 커지는 시식으로) 시장 지배력이 커지고 전채 및 보관 등 필수 서비스의 통합으로 인하여, 거래 조건을 좌우할 수 있는 강력한 대기업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선사 측의 몇 안 되는 가능성 있는 대응책 중 하나는 집단행동이다. 다수의 선사가 속한 업계 협회를 통하여 가격 하한선을 설정하는 방법이 그중 하나이다.

그러나 가격 하한선 설정은 현재까지 선사들이 집단행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보고서는 지적하였다. "선사는 다른 선사보다 어획물을 빨리 판매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인하여, 가격 하한선을 지키기 어려워진다. 선사들은 어획 쿼터 감소와 조업 비용 증가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노동 조건 악화〉

재정적 압박은 업계 내 노동 조건에도 영향을 미쳤다. 보고서에 따르면 선사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선원에게 적절한 근무 조건을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선사들이 운영을 유지하기 위하여 비용 절감을 시도하면서 기준 이하의 노동 관행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오징어 채낚기 어선은 “규모가 크고, 선사가 자본적으로 더 나은 편이다.”라고 보고서는 설명하였다.

보고서는 “이러한 이유로 오징어 채낚기 어선은 비교적 신식 기술을 반영하고, 노동 환경도 좋은 편

이다. 참치 연승선은 크기와 선사의 자본 환경 모두 다양한 편이다. 많은 참치 연승선은 운영 지속이 어려운 소규모 가족 회사에 속하였다.”라고 설명하였다.

“대기업은 선단 개선 등에 투자하거나 여황이 좋지 않은 경우에도 손실을 감내할 여지가 있는 반면에, 중소기업은 손실을 감당하기 쉽지 않다. 대기업은 조업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 출항하지 않을 수 있다. 반면 중소기업은 대출과 그 외 비용 충당을 위하여 손실을 감수하고 출항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고서는 설명하였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5년 2월 11일자

노르웨이 참다랑어 어업, 25년 어업 계획 승인

업계와 지역 사회에 긍정적 영향 기대

노르웨이는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로부터 2025년 참다랑어 조업 계획을 승인받았다.

올해 규정의 주요 변경 사항은 노르웨이 어업자에게 연승어선을 추가로 허용하는 것으로, 이는 업계와 지역 사회 모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르웨이 어업자에게 희소식이다. 연승어선에 대한 접근성이 확대됨에 따라 더 많은 참다랑어를 어획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고 노르웨이 수산업의 전망이 강화될 것이다.”라고 노르웨이의 수산해양부 장관인 마리안 시베르센 나스는 말하였다.

2025년에 노르웨이는 4척의 연승선, 7척의 선망선, 25척의 소규모 연안 어선을 포함한 선단을 이용하여 참다랑어 어업을 할 수 있게 된다. 2025년 노르웨이의 총어획량 한도는 작년 할당량과 동일한 386.4톤으로 유지된다.

“최근 몇 년 동안 참다랑어 쿼터 미활용, 쿼터 감소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조업 기회 확대는 어업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참다랑어가 노르웨이 수역으로 돌아온 것은 놀라운 기회이며, 우리는 이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라고 장관은 덧붙였다.

연승 및 선망 어선의 총합산 쿼터는 288톤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선망 어선은 적당 30톤, 연승어선은 각각 20톤의 쿼터를 보장받았다. 또한 소규모 연안어선에는 총 40톤이 배정되며, 최대 25척의 어선이 조업에 참여할 수 있다.

참가 자격은 선박 길이가 15미터 미만이어야 하며, 해안 근처에서 선택적 어업을 사용해야 한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참다랑어에 태그를 부착한 후 바다로 방류하는 레저 낚시도 허용된다. 총 386.4톤의 쿼터 중 15톤은 부수 어획, 10톤은 태그 부착 및 레저 낚시, 33.4톤은 과학 연구에 사용된다.

2025년 8월 15일, 노르웨이 수산청은 보장된 쿼터를 조정, 취소 또는 재분배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2년 연속으로 참다랑어 보존에 초점을 맞추는 시범 프로젝트에 30톤이 배정될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향후 할어 보존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4년 12월 2일자



中, 아르헨티나 수역서 오징어 싹쓸이 조업

中, AIS 끄고 불법 침범하는 사례의 92% 연루

외국 국적 어선의 불법 싹쓸이 조업을 참다못한 아르헨티나가 결국 ‘칼’을 빼 들었다.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CNN은 아르헨티나군이 불법 어업을 감시하기 위해 큰 규모의 함대를 배치했다고 보도하였다.

실제 지난달 말 아르헨티나군은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작전을 펼치는 영상을 공개하며 중국 불법 어선들을 압박하였다. 아르헨티나 국방부 측은 “이번 감시 임무는 계속되는 불법 어선의 EEZ 침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수행되었다”라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해군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이유는 자국의 EEZ와 그 인근에서 벌어지는 외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외국 어선 중 중국의 불법 원양어업이 가장 공격적

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들이 노리는 것은 연간 20억 달러 상당의 오징어다.

특히 AIS 신호를 이용해 해상 위치와 조업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글로벌 피싱 위치’(GFW)에 따르면 2월 말 이 지역에서 어선 198척을 파악했는데, 이 중 80%가 중국 국적으로 확인하였다.

문제는 불법 어선에 대한 단속이 쉽지는 않다는 점이다. 어선들이 EEZ에 바짝 붙어 양체 조업을 하거나, 위성 탐지 및 추적을 피해 AIS(선박자동식별장치)를 끄고 침범하고 있기 때문이다. CNN은 지난해 AIS가 꺼진 사례가 약 500건으로 이 중 92%가 중국 선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하였다.

* 출처: Nownews, 2025년 3월 11일자

日 언론 “아르헨티나 일렉스 어획량 전년도 수준”

중국 적도오징어 고가 행진 지속

2월 상순 시점에서, 아르헨티나 일렉스 오징어의 어획량은 전년과 비슷한 추세로 진행되고 있다. 일본 무역회사 측 소식통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EEZ 내에서의 어획량은 1일 1척당 20톤 수준이다.

아르헨티나 EEZ 밖에서는 중국 어선 약 260척이 조업하면서 1일 1척당 2~3톤을 어획하고 있다. 중국 트롤선 47척은 1일 1척당 10톤을 어획하고 있다. 2월 상순 시점 중국에서는 1미 200~300g의 가격이 톤당 3만 3,500위안을 기록하고 있다.

중국 선단의 소형 적도오징어(페루 2,000해리 거리 적도 수역에서 어획되는 오징어) 조업의 경우,

1일 1척당 9~10톤을 어획하고 있다. 중국 국내 가격은 2월 상순 시점 1미 300g 기준 톤당 1만 8,500위안, 300~500g 1만 9,500위안, 수요가 높은 500g~1kg은 2만 500위안으로 높은 수준이다.

칠레 아메리카 대왕오징어 어업의 경우, “날씨에 따라 출어 기회나 어획량이 좌우되는 와중에 일진 일퇴를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무역회사 측 소식통은 말하였다. 중국이 전체 원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으나, 페루산 대왕오징어 원료가 고가를 기록하는 와중에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

* 출처: 미나토신문, 2025년 2월 17일자



포클랜드, 3월 1일 로리고오징어 조업 시작

2월 23일에서 연기

포클랜드제도 수산청은 2월 23일 개시 예정되었다가 연기된 로리고오징어 어기가 3월 1일에 개시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로리고오징어 부문은 2024년 두 번째 어기가 취소된 이후 불확실성의 시기에 직면한 상태이다. 어기 취소는 어가의 급등을 유발하였다.

이번 어기의 개시는 2월 실시된 탐사선의 자원 조사에 따른 것이다. 본래 어기는 2월 23일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업계 단체인 '로리고생산자그룹'이 어기 시작 전 과학조사 결과를 검토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요청하면서 연기되었다.

이번 조사 결과, 자원량은 지난 5년간 최저치이자 지난 20년간의 중간값보다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이번 어기의 자원량 모델링 접근에 신

중한 접근이 요구되었다. 또한 로리고오징어의 어체 크기가 평년 대비 작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겨울의 심한 추위 때문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에 어획된 오징어의 어체 크기는 증가세를 보인다.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로리고오징어 어기는 면밀한 어업 모니터링 계획하에 3월 1일부터 시작되기로 결정되었다. 이러한 모니터링은 미성숙한 오징어 개체가 어획되어서 올해 두 번째 어기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지 않는 것이 목적이다.

포클랜드 수산청은 또한 로리고오징어 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인 수온 데이터 수집을 강화할 방법을 모색 중이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5년 3월 6일자

日 '24년 1~11월 살오징어류 어획량 5% 증가

선어 11% 증가, 냉동 44% 감소

일본의 전국단위 어업단체의 연합인 JF전어련에 따르면, 2024년 1~11월 일본 국내 살오징어류 어획량(선어, 냉동 포함)은 전년도 동기 대비 5% 증가한 1만 5,598톤이다. 선어는 11% 증가한 1만 4,716톤이지만, 냉동은 44% 감소한 883톤이다.

11월 한 달 동안의 어획량을 보면, 선어 제품은 전년도 동기 대비 12% 증가한 1,542톤, 냉동 제품은 32% 감소한 205톤, 선어·냉동 제품 합계는 4% 증가한 1,747톤이다. 평균 kg당 단가의 경우, 선어 제품은 7% 하락한 998엔, 냉동 제품은 6엔 하

락한 1,766엔이다.

일본의 살오징어류 어획량은 최근 몇 년 동안 감소 추세이다. 2016년 6만 4,000톤을 기록한 이후로 계속 줄어 2019년 3만 3,000톤까지 감소하였다. 2020년에는 다소 회복하였으나, 2021~2023년은 과거 최저를 갱신하는 중으로, 특히 2023년은 1만 5,664톤에 그쳤다. 2024년의 어획량은 전년도보다 다소 많은 수준이지만, 어획량 부족 탈출은 여전히 불분명한 상황이다.

* 출처: 미나토신문, 2025년 1월 24일자



칠레, 1월 오징어 수출 급증

일본의 칠레산 오징어 수입 급증

칠레 정부 산하 기관인 ProChile의 보고서에 따르면, 칠레의 1월 수산물 수출은 오징어 수출의 급증에 힘입어 증가하였다.

오징어 수출액은 1,939.6%나 증가하여 총 2,200만 달러에 달하였다. 칠레의 수산 부문 수출액은 이러한 증가에 힘입어 1.5% 증가한 8억 3,700만 달러에 도달하였다.

연어와 송어 등 칠레의 전통적인 주요 수산물 수출 품목은 2.7% 감소한 6억 5,600만 톤을 기록하였다. 다른 세부 품목들의 증가가 이러한 감소를 상쇄하였다.

오징어 수출과 함께 고등어류(65% 증가, 총

3,500만 달러)와 담치류(mussel, 19.2% 증가, 총 2,200만 달러)도 총수출량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미국의 칠레산 수산물 수입액은 2억 3,700만 달러로, 칠레의 최대 수산물 수출 시장 자리를 지켰다. 그러나 물량 기준으로는 8.8% 감소하였다. 이러한 물량 감소는 연어와 송어류의 6.8% 감소와 어유의 9.8% 감소에 영향을 받았다.

2위 시장인 일본의 칠레산 수산물 수입액은 8.6% 감소한 1억 6,100만 달러이다. 그러나 일본의 칠레산 오징어류 수입량은 무려 2,693.9%나 증가하였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5년 2월 28일자

2025년 8주차 한국 명태 가격, 상승세 전환

시장 안정과 변동 예측을 위해 가격과 수입량 모니터링 필요

2025년 2월 17일 기준, 한국의 냉동 명태 도매 가격은 크기에 따라 변동이 있었다. 7통(사이즈)의 가격은 상승했지만 6, 8, 9통은 하락하였다.

2025년 1월 우리나라는 총 1만 1,337톤의 냉동 명태를 수입했으며, 이는 2024년의 1만 1,562톤보다 2% 감소한 수치이다. 그러나 냉동 명태 수입 총액은 116억 8,500만 달러로 전년의 113억 5,800만 달러보다 3% 증가하였다.

평균 수입 가격은 2025년 1월 kg당 1.03달러로 2024년 0.98달러보다 5% 상승하였다. 러시아산은 kg당 1.03달러, 미국산은 1.44달러이다.

국가별 수입 점유율은 러시아가 한국 냉동 명태 수입량의 98.98%(13만 7,758톤)를 차지했고, 미국은 1.02%(1,362톤)를 차지하였다.

크기별 도매가격은 7통이 약 4만 3,000원, 8통이 약 3만 3,000원이었다. 8통의 가격은 2025년 1월 3만 6,000원에서 8.3% 하락하였으나, 2024년 12월 3만 1,000원보다는 6.5% 상승하였다.

이러한 추세를 고려할 때 냉동 명태 가격과 수입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은 시장 안정과 향후 변동 예측을 위해 중요하다.

* 출처: Fishnet.ru, 2025년 2월 26일자



오호츠크해 명태 48만 2,000톤 이상 어획

청어 13만 톤 이상 어획

2025년 2월 23일 기준 러연방 조업감시센터(CFMC)에 따르면 극동 지역의 명태 어획량은 오호츠크해의 35만 1,700톤을 포함하여 48만 2,000톤 이상을 어획하였다.

대구 어획량은 2만 2,400톤을 어획하였다. 태평양 청어 어획량은 2024년 수준을 13% 초과한 약 13만 톤을 어획하였으며 이 중 대부분인 12만 2,000톤이 북 오호츠크해 수역에서 어획되었다.

명태 조업선은 71척, 대구 조업선은 17척, 청어 조업선은 4척이 조업 중이다.

현재 연해주의 수산물 저장고의 총적재율은 33%이다. 명태 3만 톤과 청어 7,600톤을 포함한 4만 1,200톤의 수산물을 신고 36척의 선박이 접근 중이다.

조업과 관련된 문제는 러연방 수산청과 함께 비영리 공공기관이 참여하여 즉시 해결한다.

수산청의 극동 구조대는 어선의 안전을 보장하고 해양과학연구소의 과학적 지원을 제공한다.

러연방수산청은 치어 혼획 및 어란 어획 기준을 포함한 어업 규정을 준수하고 전자 형태의 증명서 발급 시스템 도입을 선장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오호츠크해 첫 어기는 1월부터 4월까지 지속되며 이 시기는 명태 어획이 가장 생산적인 기간으로 연간 생산량의 최대 80%를 차지하며 날씨와 유빙 조건이 좋지 않다.

2025년 1월 22일 농업부 명령 34호는 극동 수역의 산업용 명태 어업에 대한 제한을 도입하였다. 174°00' 동쪽의 서베링해 수역에서는 2025년 5월 16일부터 31일까지 명태 어획을 위한 모든 어구와 어업이 금지된다.

* 출처: 러연방수산청, 2025년 2월 26일자

러, 투자 쿼터 정기 신청 시작

6월까지 신청

러연방수산청은 2025년 6월 30일까지 2단계 투자 쿼터 정기 신청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청서 접수는 2025년 3월 1일에 시작되었다.

러 수산청은 1단계 투자 쿼터에 대한 1차 신청 캠페인과 2단계에 대한 3차 신청 캠페인을 공지하였다. 3월 1일부터 시작된 신청서 접수는 2025년 6월 30일에 종료된다. 관련 서류는 기관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다.

공고에 따르면, 극동 및 북부 수역의 수생 생물

자원 생산 쿼터 할당 신청은 이전에 진행된 쿼터 잔량을 고려하여 투자 대상 건설을 위한 산업 및 (또는) 연안 어업 분야 투자 목적으로 제공된다.

2016년부터 러시아는 어업에서 쿼터 배분의 역사적 원칙에서 경매 원칙으로 전환을 시작하였다. 개혁의 하나로 시장 참여자들은 생물자원 어획 쿼터의 일부를 받기 위하여 러시아 연방에서 새로운 선박을 건조할 의무가 있다.

* 출처: Portnews, 2025년 3월 4일자



유엔, 반러시아 제재로 유럽에 생선 제품 부족 경고 판가시우스, 맛과 유익한 특성 등 열세로 명태 대체 어려움

유엔 식량기구는 러시아로부터의 생선 수입 전면 금지 조치로 인하여 유럽연합이 생선 제품 부족으로 위협받고 있다고 경고하였다. 반제품 피쉬 스틱과 필렛 공장이 있는 독일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전러시아수산업협회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2025년 2월 세계 생선 시장 검토 내용을 인용하여 러시아산 생선의 EU 수입이 전면 금지되면 피쉬 스틱과 같은 인기 생선 제품이 부족해질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EU에서 러시아산 생선과 수산물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독일이 이번 사태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FAO 전문가들은 지적하며 “수입 금지 조치로 인해 피쉬 핑거와 같은 인기 수산물이 부족해지고 식품 산업의 일자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경고하였다.

2024년 8월, 유럽연합이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제재 조치의 하나로 러시아산 생선 수입 제한을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러한 금지는 발트해 연안 국가, 특히 리투아니아에서 주장했다고 German Welt는 보도하였다. 작년 말 채택된 EU의 15차 대러시아 제재 패키지에는 어류가 포함되지 않았고, 2025년 2월에 채택된 16차 제재 패키지에도 어류는 포함되지 않았다.

러시아는 EU 국가에 명태를 공급하는 주요 공급국으로, 특히 독일의 유럽 가공업체들은 러시아산 명태 공급에 의존하고 있다. 독일연방수산업협회의 전무이사 스테판 마이어는 “제재로 인해 러시아산 명태 공급이 완전히 중단되면 현재로서는 대체할 방법이 없다”라고 지적하였다.

독일과 EU에 명태가 중요한 이유

독일은 세계에서 명태의 주요 최종 소비자 중 하나라고 명태 협회의 알렉세이 부글락 회장은 말하였다.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반제품 중 하나인 피쉬 핑거와 빵가루를 입힌 필렛을 생산하는 EU 최대의 공장이 있는 국가로, 전통적으로 명태 필렛의 주요 수입국이다.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제품은 독일인이 직접 소비하지만, 다른 EU 국가에도 많은 양이 공급된다. 2020~2023년 독일은 연간 13만~13만 5,000톤의 명태 필렛을 수입하였는데, 이는 유럽 전체 수입량의 50~55%에 해당한다. 다른 EU 국가와 마찬가지로 중국, 러시아, 미국 3개국에서 명태 필렛을 수입한다.

명태협회에 따르면 2024년 EU의 명태 필렛 수입량은 17% 감소한 21만 7,300톤(금액으로는 33% 감소한 6억 2백만 유로)으로 집계되었다. 독일로의 수출은 30% 감소한 9만 5,000톤(전체 EU 수입량



의 약 45%)으로 더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이다. 그 이유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인해 현지 기업의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명태협회장은 설명하였다. 지난해부터 EU는 야생 어류에서 생산된 러시아산 명태 필렛을 무관세 관세 할당량에서 제외하였다. 이제 이 제품에는 13.7%의 관세가 부과된다.

명태협회장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의 수혜자는 바로 미국이다. “2024년 말, 미국은 명태 필렛의 주요 공급국이 되었다.” 그에 따르면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은 50~60%의 점유율로 유럽 시장에 이 제품을 공급하였다. 중국 수출업자들은 냉동 원료로 생산된 필렛을 EU로 수출했지만, 러시아와 미국은 신선한 필렛을 수출하였다. 2022년과 2023년에 러시아는 미국을 대체하고 시장의 27% 이상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2024년에는 수입 관세 도입으로 인하여 상황이 바뀌었다. 중국에서 EU로의 공급량은 14만 2천 톤에서 6만 9,500톤으로 1년 동안 절반으로 감소하였다. 러시아 제품 수입은 2023년 6만 9,500톤 수준을 유지하였다. 반면 미국으로부터의 공급은 1.8배 증가한 7만 7,800톤까지 증가하였다. 이를 통하여 2024년 유럽 명태 필렛 시장에서 36%의 점유율로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다. 러시아와 중국은 각각 32%의 점유율을 기록하였다.

미국산 명태 필렛은 유럽에서 여전히 무관세가 적용되지만 “러시아 제품은 제재가 부과되기 전보다 훨씬 더 비싸다”라고 전러시아수산업협회장은 지적하였다. “그러나 미국과 러시아는 어획 직후 신선한 생선으로 필렛을 생산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주요

명태 생산국으로 현지 가공업체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고 수산업협회장은 설명하였다.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유럽 기업의 재정 상황 악화와 최종 소비자의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수산업협회장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의 유일한 결과는 EU에서 가장 인기 있고 한때 가장 저렴한 생선 종류였던 명태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부글락 명태협회장은 러시아산 생선 수입이 전면 금지되면 유럽, 특히 독일이 가용 원자재 부족과 생산 공정 재구성이 필요하다는 FAO의 결론에 동의한다. 일반적으로 생선은 유럽 국가에서 식단의 주요 구성 요소 중 하나이다. 설문 조사에 참여한 소비자의 58%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레스토랑 등에서 어류 및 수산물을 먹는다고 답했으며, 31%는 집에서 같은 빈도로 어류를 먹는다고 답하였다.

FAO는 이번 조사에서 명태와 같은 저서어종 생선을 판가시우스와 같은 다른 생선으로 대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즈베레프 전러시아수산업협회장은 이 생선은 맛과 건강 측면에서 명태보다 열등하며, 가격도 상승하였다고 지적하였다.

2024년 명태 생산자는 러시아 국내 시장에 대한 공급을 늘렸다. 이러한 유형의 생선 소비량은 연간 1인당 4kg(날생선으로 환산할 경우)으로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다고 명태협회는 보고하였다. Rosstat에 따르면 2023년 러시아인은 1인당 연평균 22.5kg의 생선을 섭취하였다. 명태 소비의 증가는 최소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어획량 증가와 판촉 캠페인으로 인한 수요 증가의 결과이다.

* 출처: Fishnet, 2025년 3월 4일자



2024년 러시아 어업 순수익 31% 감소

어업 분야 평균 급여는 러 전 직종 평균의 두 배

2024년 러시아 어업 및 양식업계의 재무 결과(이익에서 세전 손실을 뺀 금액)는 30.9% 감소한 649억 루블을 기록하였다. 업계에서 수익성 있는 조직의 비중은 7.5%p 감소하였다고 러시아 어선주협회는 보고하였다. 어업 부의 실적 감소는 러시아 경제 전체 감소(6.9%-30조 4,280억 루블)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 기업의 재무 결과는 비우호적 시장에 대한 러시아 수산물 공급 금지 및 제한, 대규모 어선 건조 프로그램을 위한 선박 및 기타 장비 공급에 대한 제재 및 비우호적인 제한 및 어선 건조 비용 상승, 어선 건조를 위한 기준 금리의 급격한 상승과 같은 일련의 부정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았다. 경제에서 가

장 높은 수준의 인건비와 노동 보수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도 재무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어선주협회는 이러한 조건에서 우대 대출, 보조금, 부채 구조 조정 수단 및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FPV) 체제 연장을 포함한 정부 지원의 중요성이 어업 산업에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고로, 수산물 생산 비용 구조에서 임금은 지출의 1/5을 차지한다. 2024년 어업 분야의 평균 급여는 2023년에 비해 7.5% 증가하였으며 러시아 평균 급여의 두 배에 달하는 17만 5,400루블에 달하였다.

* 출처: PortNews, 2025년 3월 6일자

러, 양식어업 군 대체 복무 대상 포함

대체 복무 확대 적용을 통한 사회 기반 유지

러연방 노동부는 대체 복무 전문직을 확대하였다. 여기에는 양식업이 포함되었다. 이전에는 수산 전문직에 연안 어부만 포함하였다.

확대된 전문직 목록에는 처음으로 다음과 같은 직종이 포함된다. ▽ 기계 착유 작업자 ▽원자재, 반제품 및 완제품 수령인 ▽고기 절단자 ▽여류 양식업자 ▽정원사.

농업 전문 분야 중 대체 복무 대상 직업 목록에는 수의사, 우유 배달원, 가축 사육자, 말 사육자,

양 사육사, 순록 사육자, 동물 관리 종사자, 연안 어부, 트랙터 운전자 및 농업 생산 트랙터 기계공도 포함한다.

러시아에서 대체 복무는 자신의 신념과 종교가 군 복무와 모순되는 경우 또는 징집 대상자가 토착 소수 민족을 대표하고 전통적인 생활 방식을 따르는 경우에 이행이 가능하다.

* 출처: Fishnet, 2025년 3월 4일자



러 연구소, 조업 상황 과학 모니터링

명태 조업 수역별 어획량, 지난해보다 다소 미진

2월 중순까지 조업선은 오흐츠크해에서 총허용 어획량의 1/4을 어획하였다. 수산 연구소에 따르면, 특히 서 캄차카 하부 수역에서 2024년 같은 기간보다 어획 속도는 약간 느리다.

- 명태

지난주 오흐츠크해 명태 어업에는 최대 59척의 대형 선박을 포함하여 49~83척의 어선이 조업에 참여하였다. 전 러시아 수산 해양학 연구소 태평양 지부에 따르면 오흐츠크해의 불안정한 기상 조건이 조업을 방해하여 조업선은 조업수역을 자주 변경하였다. 그럼에도 지난주보다 폭풍 일수가 적어 지난주 대비 조업에 긍정적 영향을 제공하였다.

2월 17일 기준, 동사할린 하부수역의 명태 어획량은 29만 3,500톤(총허용 어획량의 25.4% 소진)에 달하였다. 참고로 작년 같은 날짜에는 33만 2,800톤(총허용 어획량의 30.8% 소진)을 어획하여 3만 9,300톤 감소하였다.

캄차카-쿠릴 하부 수역에서는 15만 1,900톤을 어획하여 지난해보다 3,800톤 적게 어획하였다. 서캄차카 소구역에서는 6만 2,900톤을 어획하여 지난해보다 5만 7,800톤 감소하였다. 두 수역을 합친 캄차카 수역 어획량은 21만 4,800톤으로 캄차카 수역 TAC의 33.4%를 소진하였다.

북오흐츠크해 소구역에서는 북서쪽에 선박이 집중적으로 조업하였으며, 명태와 청어를 혼합하여 조업하였다. 명태 어획량은 6만 200톤(TAC의 16.6% 소진)으로 1년 전보다 1만 2,900톤의 어획

이 증가하였다.

동사할린 하부수역에서는 트롤 조업이 없었으나 어획량 누계는 1만 8,400톤(TAC의 12.3% 소진)으로 2024년 같은 날짜에 비해 두 배나 많은 양이었다.

과학자들의 예측에 따르면 다음 주 명태 어획량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 혹은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오흐츠크 북부의 일일 평균 어획량은 대형선 100~150톤 중형선 70~100톤으로 예상하였다.

- 청어

북오흐츠크해 소구역에서 혼합 조업이 지속되었다. 청어 조업은 주 초에 폭풍우가 치는 날을 제외하고는 중형선의 조업은 안정적이었다. 청어 조업은 9~12척이 조업하였으며, 2월 17일 기준 어획량은 12만 톤(TAC의 38.7% 소진)으로 작년 동기 대비 1만 6,600톤이 증가하였다.

다음 주에도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청어어획량은 크게 변화할 수 있다. 일일 어획량은 대형 선박은 100~160톤, 중형선은 20~60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베링해

일일 선박 보고서에 따르면 2월 16일 서베링해 수역의 명태 어획량은 2만 8,300톤(TAC의 3.6%)으로 1년 전보다 800톤이 감소하였다.

조업선은 폭풍으로 인하여 온전한 조업이 지속되지 않았지만, 한주의 후반부터는 2척의 대형선박의 일일 평균 명태 어획은 56.7톤을 달성하였다.

* 출처: Fishnews, 2025년 2월 18일자



러, 2월 19일 시점 어획량 전년 대비 10% 감소

기상 악화 및 유빙으로 조업 지체

2025년 1월부터 2월 19일까지 러시아의 주요 어종인 명태의 총어획량은 2024년 같은 기간에 비해 10% 감소하여 43만 7,300톤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러시아명태협회의 데이터를 참조하여 Interfax에서 보고한 것이다.

협회는 이러한 역학 관계는 어류 생산의 핵심 생산 지역인 오흐츠크해의 불리한 기상 조건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결과적으로 어선은 폭풍우에 따라 명태 어군 탐색에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였다.

협회는 오흐츠크해의 유빙이 어선에 추가적인 문제를 일으켰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현재 이 수역은

점차 얼음이 없어지고 있어 가까운 미래에 명태 어획 상황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협회는 성어기에는 9~10만 톤의 어획량을 예상한다. 4월 중순까지 극동 수역 전체에서 명태 어획량은 100만 톤을 넘어설 수 있다.

2024년 러시아 어민은 명태 어획 기록을 달성하였다. 12개월 동안 그들은 2백만 톤에 달하는 명태를 어획하였다. 연간으로 보면 이 수치는 2%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주요 경쟁국인 미국을 64만 톤이나 앞서는 어획을 달성할 수 있었다.

* 출처: Lenta.ru, 2025년 2월 25일자

러, 2월 18일 시점 수산물 67만 톤 생산

명태 40만 톤 이상 어획

러연방 조업감시센터(CFMC)에 따르면 러시아의 어획량이 67만 톤을 기록하였다. 수역별 어획량은 다음과 같다.

- 극동 수역: 약 57만 9,200톤

명태 40만 5,500톤, 대구 1만 9,200톤, 청어 12만 5,600톤(지난해 대비 1만 3,100톤 증가)

- 북부 수역: 3만 2,900톤

대구 2만 3,700톤, 해덕 4,900톤

- 서부 수역: 1만 2,400톤(60.4% 증가)

유럽 청어 7,600톤(2,600톤 증가), 발트해 청

어 4,700톤(,000톤 증가)

- 아조프-흑해 수역: 7,400톤(멸치 6,800톤)

- 볼가-카스피 수역: 1만 1,300톤(28% 증가)

유럽 청어 1만 1,300톤(2,500톤 증가)

- 원양수역: 2만 6,600톤(127.4% 증가)

원양수역 중 외국 수역 어획량은 1만 3,200톤(2,800톤 증가)을 기록하였고, 협약수역 및 공해는 1만 3,400톤(1만 2,600톤 증가)을 기록하였다.

* 출처: Fishnet, 2025년 3월 4일자



신조선 8척, 투자 쿼터에 따라 캄차카서 건조 예정

최대 규모 트롤선, 2026년에 조업 예정

러시아 캄차카 지역에 대한 투자 쿼터 프로그램에 따라 8척의 어선과 12개의 가공 공장이 건설되었다. 이는 블라디미르 솔로도프 주지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연방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12개의 공장과 8척의 선박이 건설되는 대규모 투자 프로그램이 시행되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싶다. 최근 칼리닌그라드의 "안타르"에서 러시아에서 가장 큰 어선인 "빅토르 가브릴로프"호를 진수하였다. 캄차카는 처음으로 자체 함대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라고 주지사는 말하였다.

대통령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주지사는 레닌 어업 집단 농장의 주문으로 발틱 조선소 안타르에서 건조 중인 대형 트롤 어선인 빅토르 가브릴 로프가

2026년에 조업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이 배는 이제 진수되어 바다에서 완공될 것이다. 역사상 이러한 규모의 트롤선은 없었으며 어선단의 최고 리더가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동시에 그는 "물론 어업 단지는 여러 요인이 결합하여 현재 어려운 위치에 있다."라고 언급하였다. "첫 번째는 연어의 자원 접근량과 두 번째는 제재 압력이다. 어쨌든 비용이 상승하고 예비 부품이 부족하며 해외 시장은 제한되어 있다. 그리고 러시아 수산 기업들이 계약에 따라 지급하게 될 추가 지급금도 현재의 대출 금리를 고려할 때 심각한 부담이다."라고 주지사는 설명하였다.

* 출처: PortNews, 2025년 2월 17일자

캄차카, 지난해 120척 선박 수리

20~24년 동안 593척의 선박 수리

2024년 캄차카의 선박 수리 기업은 120척의 대형 및 중형 선박을 수리하였다. 2020~2024년 기간 동안 593척의 선박이 수리되었다.

선박 수리 산업은 여전히 이 지역의 제조업의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어업 단지의 개발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연결 고리라는 점에 주목한다. 2024년 고정 자본에 대한 투자 규모는 약 27억 루블에 달하였다.

지난해 조선에 대한 총투자 규모는 30억 루블

에 달하였다. 투자 쿼터 프로그램의 틀 내에서 보고 기간 동안 4척의 새로운 선박이 건조되었다: 레닌 어업 집단 농장에서 3척의 소형선과 중형 계잡이 어선 "알레스타" 1척으로, 2020~2024년까지 총 12척의 선박이 건조되었다.

캄차카 어업은 해양 생물 자원 생산에서 러시아 1위를 차지한다. 이 지역에서는 매년 120만 톤에서 180만 톤의 해양 생물 자원이 어획된다.

* 출처: Fishnet, 2025년 3월 4일자



베링해 명태 어업 제한 도입 자원을 보존하고 장기적인 수익 창출 가능

2025년 1월 22일자 러시아 연방 농업부령 제34호 베링해 명태 조업 제한에 따라 동경 174° 00' 동쪽 서베링해 구역에서 상업 명태 조업이 제한된다. 이 조치는 2025년 5월 16일부터 31일까지 시행된다. 이 금지 조치는 명태를 어획하는 모든 어구 및 어법에 적용된다.

5월 15일까지 적용되는 산란에 따른 조업 금지 기간을 고려할 때, 올해 봄철의 서베링해 동부 지역에서 서의 명태 조업이 전면 금지된다.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명태 조업 제한은 수산업, 특히 이 어종에 의존하는 어민과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어민의 소득 감소는 물론 시장 상황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조치가 명태 개체수 회복과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하여 장기적으로 전체 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대체 해결 방안〉

제한이 시행되면 어업 업계는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대체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1. 업종 전환: 어민들은 대구나 청어 등 시장 수요가 많은 다른 어종으로 어업을 전환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2. 양식업 투자: 양식업 개발은 통제된 조건에서 물고기를 생산하고 야생 개체군 생산 압력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3. 지속 가능 어업: 지속 가능한 어업 관행을 채택하고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사용하면 자원을 보존하고 장기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러연방 농업부는 “서부 베링해 수역에서 명태 조업을 제한하는 것은 어민과 기업가 사이에서 우려를 불러일으키지만, 해양 자원을 보존하는 데 필요한 조치이다. 수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참여자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여 궁극적으로 명태 개체수 회복과 해양 생태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치의 목적을 설명하였다.

* 출처: Fishnet, 2025년 2월 25일자



러 명태 필렛 생산량, 2년 만에 증가

명태 어획량의 1/3 러 국내 시장 공급

지난 2년간 러시아 기업은 '세계 시장의 불안정한 상황'으로 인해 명태 필렛 생산량을 줄여왔다. 이제 상황이 반전되고 있다.

러시아 명태 생산업체들은 올해 국내 시장을 겨냥해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 생산을 늘리고 있으며, 특히 필렛, 민스, 연육에서 눈에 띄는 성장을 보인다고 명태어업협회는 밝혔다.

부가가치가 높은 명태 제품의 생산량은 2024년 같은 기간에 비해 연초 이후 17% 증가하여 7,600톤에 달했다고 협회는 보고하였다.

연육 생산량은 41% 급증했지만, 명태 필렛 생산량은 2년 동안 감소세를 보이다가 7% 증가하였다.

"2년 연속 러시아 어업자들은 세계 시장의 불안정으로 인해 명태 필렛 생산을 줄였다."라고 협회장 알렉세이 부글락은 IntraFish에 말하였다.

"이제 국내 시장이 이 제품의 주요 목적지가 되었으며 연초부터 필렛 생산량은 작년에 비해 7% 증가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인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협회에 따르면 2월 19일 기준 러시아 극동 지역의 전체 명태 어획량은 43만 7,300톤으로 지난해 대비 10% 감소하였다.

협회장은 "어획량 감소는 주요 명태 어장인 오호츠크해의 어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협회는 오호츠크해의 "A" 시즌 총어획량이 80~85만 톤으로 예상한다.

협회장은 "4월 중순까지 극동 수역 전체의 명태 어획량이 100만 톤을 넘어설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2024년 러시아는 전년 대비 2% 증가한 199만 8,000톤을 어획해 명태 어획량 신기록을 달성하였다. 전통적으로 4월 10일에 끝나는 "A" 시즌의 전체 어획량은 105만 톤을 넘어섰다.

2024년 국내 전체 어획량에서 명태가 차지하는 비중은 41%에 달하였다.

협회에 따르면 러시아 국내 명태 공급량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러시아 명태 어획량의 약 1/3이 러시아 시장으로 공급되었다.

명태 필렛의 러시아 국내 공급량은 전년 대비 2.6배 증가한 4만 6,000톤을 기록하였으며, 명태 연육은 1.9배 증가한 2만 1,000톤을 기록하였다. 명태 민스의 러시아 국내 공급량은 8,000톤으로 73% 증가하였다.

* 출처: IntraFish, 2025년 2월 25일자



러시아의 생선 가격 상승

물류비용과 수출 증가의 원인

최근 몇 달 동안 러시아에서는 생선 가격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며 지역 가격이 모스크바 가격과 비슷해지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무르만스크에서는 현지에서 생산된 훈제 카펠린의 가격이 스몰렌스크 지역이나 모스크바 근교 지역의 생선보다 70~100루블 더 비싸다.

북부 수역 연안 어업 협회장인 발렌틴 발라쇼프에 따르면, 러시아-노르웨이 수산위원회는 2024년에 러시아와 노르웨이 어업자의 카펠린 어획량을 일정 수준으로 설정하였다. 러시아 어선은 이 한도의 70%를 어획하였고, 대부분은 무르만스크 항으로 운송되었다. 그러나 최근 바렌츠해의 카펠린 자원은 심각하게 고갈되고 있다.

평균 급여가 10만 8천 루블에 달하는 무르만스크 지역에서 생선 가격이 소고기 가격과 비슷하지만, 지역 주민들에게는 여전히 저렴한 가격이다. 가격 상승은 물류비용과 수출 증가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은 매출의 약 40%를 차지하는 청어와 고등어와 같은 저렴한 생선을 여전히 적극적으로 구매하고 있다.

어업 쿼터 할당량이 변경된 이후 대규모 양식 회사가 이 지역에 진출했지만, 지역 생산자들은 러시아 중부 지역의 수산물과의 경쟁에 직면해 있다. 주민들에게 저렴한 생선을 공급하려는 조치가 취해지고 있지만 제한된 범위 내에서 운영된다.

* 출처: Fishretail, 2025년 2월 21일자

러시아 생선 통조림 가격 최대 25% 상승 예상돼

원어, 환율, 인건비 등 상승 영향

시너지 대학교 경제이론 및 행동경제학과 부교수인 마가리타 코베츠 경제학 박사는 2025년에 러시아 상점의 생선 통조림 가격이 최대 25% 인상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많은 생선 가공 회사는 제품 가격 인상을 발표하였다. 가격 인상 폭은 3%에서 25%까지 다양하다. 첫째, 판매 가격 인상은 원어 가격 상승으로 인한 것이다. 예를 들어, '루쓰꼬예 모레' 회사의 경우 대서양산 원어는 가격이 10%, 태평양산 원어는 평균 16% 상승하였다. 둘째, 통조림 생선

제품의 가격 상승은 환율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한다. 셋째, 연어 어획량은 20년 만에 최악이었다. 생산량은 2023년에 비해 61% 감소한 23만 5,500톤이다. 또한 대구 생산량은 전 세계에서 감소하고 있다."라고 코베츠는 언급하였다.

가격 상승의 또 다른 이유는 러시아로 수입되는 통조림의 구매 가격이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인건비가 30~60% 증가하였으며 이는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코베츠는 말하였다.

* 출처: Fishnet, 2025년 2월 26일자



美, 2024년 명태 섭취량 기록적 수준

어획량, 2년 만에 27% 증가

2024년 미국 소비자들은 기록적인 양의 명태를 섭취하였다. 이는 미국 명태 업계가 미국인들이 수입산 흰살 생선 대신 자연산 명태 마케팅에 호응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고 언더커런트는 보도하였다.

이는 러시아산 수산물의 미국 수입 금지 조치와 함께 다른 나라에서 명태를 수입하면서 전체 명태 물량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시애틀에 본사를 둔 명태 생산자 협회(GAPP)는 지난 2월 23일 미국 수역에서 잡힌 알래스카 명태와 미국 시장에서의 러시아 및 동아시아산 명태를 합친 물량이 2023년 12만 4,337톤에서 2024년 11만 5,260톤으로 약 7% 감소하였다고 알렸다.

GAPP는 당초 국내산과 수입산을 포함한 모든 명태의 1인당 소비량은 이러한 물량 감소에 비례하여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GAPP는 미국

수역의 명태 어획량이 2023년 99,815톤에서 2024년 11만 5,065톤으로 약 13% 증가하였다고 알렸다. 이는 2년 만에 약 27% 증가한 수치이다.

“미국인들이 알래스카 명태로 만든 제품을 더 많이 먹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GAPP의 대표인 크레이그 모리스는 성명을 통하여 말하였다.

GAPP의 마케팅 활동은 미국산 명태를 필렛, 연육, 빵가루를 입힌 피시 핑거 형태로 구매하도록 장려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포장과 메뉴에 '자연산 알래스카 명태'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명태는 대구에 비해 저렴한 대안으로 소비자에게 수요가 높다. 미국 생산자는 베링해 명태 어업의 생산 호조를 보인다. 그러나 어획량이 좋으면 쿼터가 조기 소진되어 공급 감소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 출처: Dalekayaokraina, 2025년 2월 26일자

러, 수출관세 2025년부로 폐지

생산자 부담 경감

러시아 정부는 2023년 10월부터 수산 제품 등에 부과된 러시아의 수출 관세를 2025년 1월 1일부터 폐지하였다. 러시아 전문 무역회사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 극동에 위치한 게 생산 대기업은 2024년 500만 달러의 수출관세를 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무역회사는 “러시아 생산자의 경비가 다소 감소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러시아 정부는 자국 시장 보호를 목적으로 2023년 9월 21일 정부령 제1538호로 수출관세 제도를 도입하였다. 최대 과세율은 7%였다. 정부령으로 2024년 말까지로 정해졌던 과세 시한을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였다.

* 출처: 미나토신문, 2025년 2월 26일자



日 홋카이도 콩치협회 “소형선 조업 체제 구축 목표”

러 수역 및 오호츠크 수역 중요성 부각

홋카이도 콩치어업협회(야기다 카즈히로 회장)는 2월 28일 삿포로에서 2025년도 통상 총회를 개최하였다.

지난해 일본의 콩치 어획량은 전년도 대비 1.6배인 약 3만 9,000톤이며, 생산 금액은 전년도 대비 1.8배인 약 180억 엔으로, 5년 전 수준으로 회복하였다.

야기다 회장은 서두 인사에서, “작년은 러시아 수역에서 오랜만에 4,700톤 정도의 어획이 있어, 올해도 크게 기대되지만, 러시아와의 협상이 아직 타결되지 않았다. 가능한 한 빨리 결론이 나도록, 정부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보고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공해를 중심으로 조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멀리 갈 수 없는) 소형선에 있어서 러시아 수역과 오호츠크 수역이 매우 중요해진다”라고 말하였다.

총회에 참석한 일본 수산청 홋카이도 어업조정사무소의 우치야마 소장은 23년도부터 도입되고 있는 개별어획할당(IQ) 관리 제도에 대해 “자원 관리의 추진과 어업 경영의 안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IQ 도입 후의 검증을 실시해서 운용면의 과제를

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며, 어업자의 협력을 요청하였다.

총회에 참석한 홋카이도 도청 수산임무부의 다카하시 과장은 북태평양어업위원회(NPFC)에서 합의한 국제적인 자원관리조치에 대해 “중국과 대만의 어선이 TAC를 소진하고 예년보다 조기에 조업을 마치는 등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홋카이도 콩치협회 측은 올해 사업 계획에서 특히 소형 어선 대책에 힘을 쏟기로 결의하였다. 소형 어선은 최근, 조업 가능한 기간 및 조업 수역이 한정되어 어려운 경영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콩치의 회유 상황에 따라 적절히 조업이 행해지도록, 조업 체제의 구축에 임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일정한 어획이 있던 러시아 수역의 유효 이용과 함께, 최근 조업 수역으로 기대를 받는 오호츠크 수역에 대해 25년도 중으로 새로운 규칙을 구축할 수 있도록, 홋카이도 도청이나 오호츠크 수역 콩치어업조정협의회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5년 3월 3일자



日 공치붕수망협회 “8월 10일 출어 예정” “대형선 경영 개선되었으나 중소형선 여전히 어려워”

일본 전국공치붕수망어업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회)의 카자와 키이치로 부조합장은 2월 27일 삿포로에서 열린 홋카이도 공치어업협회의 2025년도 총회에서, 올해 공해 조업의 출어를 작년과 같은 8월 10일로 할 예정이라고 보고하였다. 일본 수역·러시아 수역 조업은 기존대로 선박 크기별로 8월 10일, 15일, 20일 단계적으로 출어 예정이다.

내빈으로 초청받은 카자와 부조합장은 지난해 조업을 되돌아보며 “계속 공해 중심의 조업이 된 결과 대형선은 전반적으로 경영이 개선되었지만, 소형선과 중형선의 어획량은 형보를 겪으며 매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부조합장은 또한 지난해 일정한 어획량이 관측된

러시아 수역에서의 조업이 가능해지도록, 일-러간 어업 협상의 조기 재개 및 타결을 호소하였다.

또 3월 말 개최 예정인 북태평양어업위원회(이하, NPFC)에 대하여, “지난해 회의에서 자원관리 규칙이 정해져 국제적인 규제에 따른 효과가 나온다. 이번 회의는 각국의 어획범위가 결정되는 매우 중요한 회의가 된다. 일본의 권익이 제대로 지키도록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였다.

협회 측은 공해에서의 조업에 대하여, 관계 각국이 단속선을 늘리는 등 단속을 강화하는 방향에 있으므로, 선박감시시스템(VMS)의 발신을 포함하여 규칙의 확실한 준수를 호소하였다.

※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5년 3월 3일자

日, 공치붕수망어선의 북태평양 오징어 겸업 검증 추진 공치붕수망 어업 경영 악화로 수익성 개선 도모

일본 수산연구·교육기구(이하, 수연구구) 개발조사센터는 대형 공치붕수망어선을 오징어 어업 겸업선으로 개조하여, 북태평양에서 빨강오징어(무라사키오징어, 북태평양을 회유하는 대형 오징어종) 어업의 겸업 시험을 추진한다.

공치 어획량 감소가 이어져 어업 경영이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원료 가치가 높아지는 빨강오징어 어업 겸업이 공치 어선의 가동률 향상으로 이어지는지를 검증하여 수익성의 개선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 목표이다.

집어등으로 집어하는 오징어 어선이 조업 형태는 대형 공치붕수망 어선과 유사성이 있어, 공치 어기(8~12월) 이외의 겸업 대상(4~7월)으로 빨강오징어 어업이 적합할 가능성이 있다.

수연구구 개발조사센터의 이번 공치-오징어 겸업선 개조 및 실증 시험조업은 수산청의 위탁사업인 ‘어획량 부족에 대응한 조업체제 긴급구축 실증사업’의 일환이다. 시험 기간은 2월 21일~3월 13일, 5월 중순~7월 중순이다.

※ 출처: 미나토신문, 2025년 2월 19일자



트럼프, 관세 조치 일시 연기...시장 혼란

4월 2일까지 멕시코, 캐나다 대상 관세 유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멕시코산 및 캐나다산 제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일시 유예하기로 하였고, 이는 투자자, 주식 시장, 사업 등에 큰 충격을 유발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멕시코산 참치 통조림 수입 업체에 일시적으로 숨통이 트이게 할 수 있다.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는 3월 4일부터 부과되기 시작하였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캐나다-멕시코 자유무역협정 대상 품목에 대한 관세를 4월 2일까지 연기하기로 지난 3월 6일 발표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로써 2개월도 안 되는 기간에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를 두 번이나 연기하였다.

관세 유예의 원인 중 하나는 미국 자동차 산업계의 영향 때문일 수 있다. 지난 3월 초순, 테슬라를 제외한 미국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를 대표하는 단체인

‘미국자동차혁신연합’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부과되는 관세가 심각한 물가 상승을 유발할 것이라는 우려를 미국 정부에 전달하였다.

캐나다와 중국은 자국 항구에 도착한 여러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였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조치에서 한 발짝 물러선 또 다른 원인이기도 하다.

2024년 멕시코산 참치 통조림은 태국산에 이어 미국 시장에 두 번째로 많이 수입된 외국산 통조림이었다. 관세 유예로 인하여 미국 브랜드, 유통업체, 무역업체, 소비자에게 더 많은 혼란이 유발될 것으로 전망된다.

* 출처: Atuna, 2025년 3월 7일자

러, 2024년 북서태평양수역 러 근해 어획량 분석

정어리 선박의 1일 평균 어획량 급증

전러시아 수산해양연구소(VNIRO)의 태평양 지부는 러시아 어선 어획량 역학을 분석하였다. 정어리는 러시아 근해어업의 주요 어종이다.

2024년 러시아 어민은 정어리를 59만 2천 톤을 어획하면서 9% 증가한 어획량을 달성하였다. 선박당 평균 어획량은 1980년대에는 50톤을 넘지 못했던 수치가 230톤을 기록하였다.

태평양 고등어의 경우 산란량 감소를 배경으로 상업적 자원량이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2024년 러시아 어선 2척이 쾡치를 조업하였다. 이 어업은 11월 25일에 완료하였으며, 813톤을 어획하였다. 지난 한 해 동안의 조업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쾡치의 먹이 활동 기간에 쾡치 어군이 러시아 배타적 경제수역(EEZ)으로 더 가까이 이동하는 새로운 추세가 확인되었다. 향후 수년간 쾡치가 쿠릴열도 중부 수역으로 접근하고 러시아 EEZ 쾡치 어획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출처: Fishery.ru, 2025년 2월 15일자



美, 관세 장벽으로 수산물 수출 감소

러시아 5~10년간 가격 우위 예상

미국 연방 수산청인 NOAA Fisheries에 따르면, 2024년 미국 수산물 수출량은 6%(120만 톤), 금액은 4%(50억 달러) 감소하였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수출 시장에서 미국 어업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관세 장벽이다.

미국 수산물 수입업체는 작년에 3억 6,400만 달러의 관세를 납부하였으며, 이는 2023년보다 4% 증가한 수치이다. 중국은 2024년 관세의 2억 3,290만 달러(64%)를 차지하였다. 이 시장은 계속해서 미국 어민에게 중요한 시장이다. 작년에 1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수산물 약 31만 9,200톤이 중국으로 선적되었다. 수출량은 1% 증가하였지만, 금액은 2% 감소하였다. 그러나 캐나다는 여전히 주요 시장으로, 수출량은 16만 톤, 10억 달러에 달하였다. 이는 전년 대비 물량은 1% 감소했지만, 금액은 3% 증가한 수치이다.

2024년 미국인은 9억 4,590만 달러에 달하는 약 33만 2,500톤의 명태 제품을 세계 시장에 수출하였다. 수출량은 2% 증가하였지만, 금액은 6% 감소하

였다.

최악의 결과는 연어 수출에서 나타났다. 미국은 약 13만 9천 톤의 태평양 연어를 8억 4,370만 달러에 세계 시장에 공급하였는데, 이는 1년 전보다 물량은 31%, 금액은 13% 감소한 수치이다.

러시아와 미국은 세계 수산시장에서 명태와 태평양 연어 부문의 주요 시장이라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러시아는 확실한 리더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2024년에는 외부 및 내부 관세 장벽으로 인해 러시아의 생선 수출도 감소하였다.

알래스카 어업에 대한 검토에서 NOAA는 러시아 어부가 어업 선단과 연안 가공 시설에 투자하면 향후 5~10년간 세계 시장에서 가격 우위를 점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NOAA 보고서는 미국인들이 알래스카에서 가공에 투자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현재의 낮은 세계 어류 가격과 높은 대출 금리를 고려할 때 이는 어렵다고 알렸다.

* 출처: Dalekayaokraina, 2025년 3월 7일자





스페인 조선소, 이빨고기 조업 트롤 어선 건조

신규 트롤선으로 운영 비용 절감, 탄소 발자국 최소화

스페인 비고에 본사를 둔 아르헨티나 최대 어업 회사 중 하나인 Newsan社와 스페인의 거대 수산물 기업인 Profand社는 협업을 통하여 아르헨티나의 어선을 현대화하기로 하였다.

이들은 아르헨티나 및 인근 해역에서 파타고니아 이빨고기 및 기타 어종 조업을 위한 최신 냉동 트롤 어선을 공동 발주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두 회사는 스페인 조선소에서 건조될 새 선박을 “가장 현대적인 최첨단 냉동 트롤 어선”이라고 설명하며, 운영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설계했다고 밝혔다. 길이 85미터, 폭 14미터의 이 선박은 일일 생산 능력이 최대 8만kg에 달한다. 이 선박은 노후화된 에치젠 마루(B/P Echizen Maru)를 대체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2025년 1분기에 건조가 시작되어 2027년 4월에

인도 예정이다. 선박에는 연료 소비 감축 목적 에너지 회수 시스템, 최적화된 조업을 위한 효율적인 기계, 정확하고 지속 가능한 어획을 위한 적응형 어구, 제품을 다양화하고 모든 어획물의 활용을 극대화하는 선상 어분 공장 및 첨단 냉동 시스템 등 첨단 기술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러한 혁신은 해상 조업 일수를 늘리고 제품 품질을 향상하며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 선박의 탄소 발자국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효율성이 개선된 새 선박은 연간 수출량을 15% 증가시켜 아르헨티나에 더 높은 외환 수입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 프로젝트에는 어분 공장과 첨단 냉동 시스템이 포함되어 파타고니아 이빨고기 어획량을 최적화할 뿐만 아니라 회사 제품을 다양화할 것이다.”라고 Profand社는 지적하였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5년 3월 7일자

아르헨 수산업, 국제 변화 고려한 역량 발전 필요성 제기

정부 지원 외에 비용 최적화 및 운영 적응 필요

아르헨티나 마르델플라타를 근거로 하는 언론사 ‘Pescare’는 아르헨티나 어업 부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어업 부문은 과거의 관행에 도전하는 경제 모델의 변화로 인한 변화에 직면해 있다. 생존의 열쇠는 정부의 해결책이나 비용 최적화와 운영 적응에 있다. 수익성 위기에 직면한 기업은 효율성에 투자하지 않으면 사라질 위험이 있다.

지난 25년 동안 수산업은 성장에 유리한 확장적 경제 모델에 따라 운영되어 왔다. 많은 기업인은 이러한 호황이 2002년 이후 지속적인 인플레이션과 특히 중국의 지속적인 국제 수요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수산업의 혁신과 발전 역량에 기인한다고 생각하였다. 앞으로 이를 고려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출처: Pescare, 2025년 2월 16일자



수산물, 타 단백질 대비 환경 영향 훨씬 적어 소비자에게 명확한 사실을 알리면 엄청난 이익 제공

Intrafish는 수산물의 타 단백질 대비 환경 영향 관련 우월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수산물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복잡한 사실이 많다. 수산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도 어떤 것을 사야 하는지, 어디서 사야 하는지, 어떻게 요리해야 하는지, 양식산과 자연산에 대한 미묘한 차이를 설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수산물(양식 및 자연산)이 육상 단백질보다 객관적으로 환경에 더 좋은 선택이다.

육상 단백질의 탄소 발자국은 수산물과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차이가 있다. 돼지가 날거나 닭이 해엄치거나 소가 달에서 사육되지 않는 한, 이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중력은 항상 승리하며, 서있으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단백질의 탄소 발자국은 계산하기 복잡하고 변수에 따라 다른 수치가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결과는 모두 매우 명확하다. 수산물이 계속해서 승리하고 있다. 가장 많이 인용되는 노르웨이 연구기관 SINTEF의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도로 또는 해상으로 시장에 출하되는 노르웨이 연어의 탄소 발자국은 1kg당 5~6kg의 CO2를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금류보다 약 40% 적고, 돼지고기의 절반 이하이며, 소고기의 1/5 수준이다.

야생 어업은 육상 기반 단백질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다. 2021년 라이프사이클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 어획된 명태는 1kg당 3.77k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며, 소고기는 1kg당 115.75kg의 CO2를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대부분의 소비자는 이러한 수치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은 수산 업계가 신속하게 대응하고 간결하고 명확한 메시지를 만든다면 엄청난 이점을 활용할 기회가 된다.

소비자는 점점 더 자신의 식품 선택이 기후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어 하며, 식품 포장에 탄소 배출량 라벨 부착 요구가 커지고 있다.

덴마크 정부는 유럽연합 전체의 청사진이 될 수 있는 포장 전면 배출량 점수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식품에 탄소 발자국 라벨링을 도입한 첫 번째 주요 기업 중 하나는 네덜란드-벨기에 아홀드 델하이즈 그룹에 속한 소매업체 알버트 하인으로, 2024년 4월부터 이 라벨을 시범적으로 도입하였다.

알버트 하인의 수치에 따르면 노르웨이 연어 필렛의 CO2 배출량은 kg당 3.8kg에 불과한 CO2를 배출한다. 이것이 소비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알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알버트 하인의 결정에 많은 소비자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친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의 매장 방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도 탄소 발자국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미국인들은 스테이크와 햄버거를 즐겨 먹지만, 음식과 관련된 탄소 발자국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육상 동물 소비 감소이다.



즉, 소비자가 객관적으로 더 건강한 단백질을 선택할수록 지구 건강을 위해 선택을 하는 독특한 선순환 구조에 수산물이 부합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수산 업계가 스스로를 축하하기 전에 몇 가지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첫째, 아직 수년간 지속 가능성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남아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양식 새우는 여러 연구에서 탄소 발자국 배출량에서 예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식 사료는

여전히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다(새로운 성분을 사용한 사료는 그 수치를 낮출 수 있다). 그리고 전 세계의 많은 어선이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비효율적인 선박을 운영하고 있다.

수산업계는 생산한 식품에 대하여 자부심을 느끼는 것은 좋지만, 소비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다. 이에 대해 소비자와 소통이 필요하다.”

* 출처: IntraFish, 2025년 1월 30일자

미국 외식산업 2025년 매출, 1조 5,000억 달러 기록

경제개선 및 소비수요 증가 영향

전미레스토랑협회(NRA)가 발표한 2025년도 레스토랑 업계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의 미국의 외식 업계의 매출은 경제 환경의 개선이나 견고한 소비자 수요 등에 힘입어 1조 5,000억 달러에 도달할 전망이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4%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외식업 일자리 수는 1,59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 외식 사업자는 올해의 장사 환경에 대해 신중하면서도 낙관적으로 전망하며 작년에 비하여 수요 증가를 전망하는 시각이 많았다. 한편으로 타사와의 경쟁은 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과제와 우려점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고용과 식품 비용 상승, 직원 채용과 고용 유지가 꼽혔다. 또 고급 레스토랑과 캐주얼 다이닝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올해 중요사항에 매장 내 취식의 회복을 지적하는 응답이 많았다.

한편, 테이크 아웃이나 딜리버리 등 점외 취식은 젊은이를 중심으로 필수 불가결한 것이 되고 있다. 배달은 기술과 간편성, 프로모션 등의 영향

으로 밀레니얼 세대의 89%, 전체 소비자의 82%가 금전적으로 가능하면 더 많이 배달을 주문하겠다고 응답하는 등 높은 관심을 기울인다. 또 테이크 아웃은 유연성과 속도의 이점에 힘입어, Z세대의 67%, 밀레니얼 세대의 64%, 소비자 전체의 절반 이상이 필수적이라고 회답하였다. 또한 외식 사업자의 절반이 전체 매출 중 점외 취식의 비중이 2019년보다 증가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소비자 대상 조사에서는, 금전적 여유가 있다면 레스토랑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소비자의 과반수는 메뉴 가격보다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경향도 있어, 전체의 약 절반의 사업자가 고객 획득을 향해서 새로운 할인 서비스나 프로모션 기획을 전개할 계획을 나타냈다.

NRA는 미국 외식산업의 주력단체. 레스토랑과 푸드서비스 등 100만 개 이상, 고용인원 기준 1,570만 명이 가입한 상태이다.

* 출처: 미나토신문, 2025년 2월 26일자



글로벌 수산물 시장의 주요 트렌드

세계 인구의 20% 생선 소비 늘어나

이노바 마켓 인사이트(Innova Market Insights) 분석가는 글로벌 수산물 시장의 트렌드를 분석하고 소비 성장과 수산물의 차별화를 결정하는 세계 추세를 조망하였다.

전 세계 소비자 3명 중 거의 2명은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생선과 수산물을 선택한다. 따라서 생선 제품 출시 시 건강 효능을 강조하는 문구가 점점 더 인기를 얻고 있다.

이러한 추세로 인해 전 세계 인구의 20%가 생선 소비를 늘린 것으로 Innova는 추정하고 있다. 바로 조리하거나 먹을 수 있는 생선 요리의 공급이 증가하는 추세는 품질, 다양성, 조리 편의성에 대한 소비자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글로벌 수산물 업체가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한다.

다양한 국가의 요리 전통과 맛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생선 요리의 혁신과 다양성(예: 일본 데리야끼, 인도 티카 마살라, 중국 탕수육 등)이 제공되고 있다.

제품의 '순도'(첨가물/방부제 무첨가, 천연성, GMO 무첨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품은 전 세계 소비자의 56%가 선호한다. 러시아인의 약 절반이 제품을 구매할 때 '바이오', '에코' 또는 '유기농' 라벨에 주의를 기울인다.

소비자의 43%는 맛과 향이 생선 및 수산물 구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답하였다. 상위 5가지 맛은 훈제, 칠리, 토마토, 마늘, 레몬이다.

소비자들은 자국의 전통과 문화를 반영하는 제품

을 선택한다. 이러한 측면은 전 세계 소비자의 40%에게 중요하며, 이러한 제품의 공급이 연평균 46%씩 성장하고 있다.

소비자의 21%는 캐비어, 조개류, 프리미엄 생선 품종과 같은 별미에 대한 관심을 강조한다. 동시에 미식뿐만 아니라 건강한 요리에도 관심이 많다. 소비자에게는 맛과 건강이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영양가가 높은 프리미엄 제품을 제공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좋다.

세계가 주목하는 수산물의 5대 효능은 다음과 같다:

- 오메가-3
- 단백질 공급원
- 첨가물 및 방부제 무첨가
- 합리적인 가격대의 최고급 제품 제공
- 글루텐 프리

다섯 가지 주요 효능 외에도 지역별 선호도는 다음과 같다:

1. 아시아 태평양: 트랜스 지방 무함유, 섬유질 함량 높음
2. 중동/아프리카: 저지방, 유당 무함유 제품
3. 유럽: 유기농, 유당이 없는 제품
4. 북미: 유전자 변형 성분이 없는 제품

* 출처: Fishretail, 2025년 3월 6일자



노르웨이, 16년간 기록적인 러시아산 생선 수입 대구류의 수요는 여전히 강세로 공급 증가

2024년 러시아의 대 노르웨이 생선 수출량은 2만 6,000톤으로 85% 증가하였으며, 금액으로는 2023년 대비 2배 증가한 12억 NOK(1억 6백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노르웨이 중앙 통계청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분석 센터는 물리적 측면에서 공급량은 2008년 이후 최대, 금전적 측면에서는 2002년 이후 최대를 기록하였다고 확인하였다.

절대 수치로 보면, 노르웨이로의 러시아 생선 수출 증가량(2024년에서 2023년)은 거의 1만 2,000톤에 달했으며 이는 EU로의 공급량 손실을 50% 보상한다. EUROSTAT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3년까지 러시아에서 EU로의 생선 및 수산물 수출량은 무게는 10% 감소한 18만 톤, 금액은 20% 감소한 7억 유로로 2024년부터 2023년까지 감소하였다.

동시에 2024년 노르웨이 항구의 러시아 선박의 어획량은 2023년에 비하여 1% 증가한 8만 500톤으로 미미하게 변경하였다.

2019년 이후 하역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거의 65% 감소하였다.

대서양 대구 공급(71%)이 지배하고 있으며, 2023년에 비해 2024년에 공급이 20% 증가하였다. 공급의 나머지 30%는 해덕, 대구류, 고등어, 청어이다(노르웨이 수산청 자료).

대서양 대구와 원양 대구의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지만, 세계 시장의 수요는 여전히 강세를 보인다. 이는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작년 프랑스와 노르웨이의 러시아산 생선 공급이 증가한 이유를 설명한다.

* 출처: Fishnet, 2025년 3월 4일자



< 2019~2024년 동안 러시아의 노르웨이 수산물 공급 변화 >



日, 여전히 베트남의 최대 수산물 수출 시장 참치 수출 크게 감소

베트남 수산물 수출 및 생산자 협회(VASEP)에 따르면 1월 베트남의 5대 수산물 수출시장은 일본, 미국, 중국, 한국, EU였다. 이 중 최대 시장은 일본이었다.

통계에 따르면 일본은 1월에 8,300만 달러 상당의 베트남산 수산물을 수입하였다. 이는 전년 대비 8% 감소한 수치이다. 감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한 달 동안 베트남의 최대 수산물 소비국 자리를 지켰다.

미국은 전년 대비 2% 증가한 5,200만 달러로 2위를 차지하였으며, 중국과 홍콩이 91% 증가한 4,400만 달러, 한국이 15% 감소한 3,700만 달러, EU가 12% 감소한 2,900만 달러로 그 뒤를 이었다.

베트남의 1월 전체 수산물 수출액은 3억 2,3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4% 감소하였다.

품목별로는 참치 16%, 오징어 및 문어 15%, 기타 수산물 13% 감소 등 수산물 품목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를 기록하였다. 반면 조개류, 게 및 기타 갑각류의 수출은 118%나 급증하였다.

참치 제품의 경우, 베트남 참치 수출액은 6,600만 달러 이상을 기록하여 검토 기간 동안 베트남 전체 수산물 수출 수익의 약 20%를 차지하였다.

VASEP에 따르면 신선, 냉동 및 건조 참치를 제외한 대부분의 참치 제품의 수출 수익은 감소 추세를 보였다. 특히 참치 통조림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6%나 급감하였다.

베트남의 주요 시장인 참치 수출은 크게 감소하였다. 이 중 미국으로의 수출은 전년 대비 2% 감소한 약 2,600만 달러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관세 인상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미국 기업들이 작년 남은 몇 달 동안 수입을 늘리면서 미국 내 재고가 증가하였다고 지적한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새로운 관세 부과 결정으로 인하여 미국 수입업체는 신규 주문 체결을 제한하였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요인들이 향후 미국의 참치 수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한다.

그 밖에도 EU로의 참치 수출도 전년 대비 13% 감소하였으며, 참치 통조림 수출액은 21% 급감하였다.

전문가들은 가다랑어 국내 공급처 부족이 이 까다로운 시장에 대한 참치 통조림 수출을 계속 방해하고 있다고 관측하였다.

또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시장으로의 참치 수출도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일본과 캐나다로의 수출은 각각 26%, 36% 급감하였다.

* 출처: Vov.vn, 2025년 3월 3일자



태국, 가공 수산물 수출 선도국 입지 강화

주요 시장 수요 회복으로 수출량 22% 증가

태국 참치 생산자 협회에 따르면 참치, 정어리, 연어, 고등어, 애완동물 사료 등 통조림 및 가공 수산물의 태국 총수출량은 2024년에 22%(148만 톤), 금액은 23%(54억 3천만 달러) 증가하였다. 그 이유는 미국, 중동, 아프리카 등 주요 시장의 수요 회복 때문이다. 동시에 중동으로의 수출은 42%, 아프리카로의 수출은 45%, EU로의 수출은 53% 증가하였다.

태국의 주요 수출 상품인 필렛을 포함한 통조림 및 파우치 참치의 세계 시장 수출은 전년 대비 물량(57만 9,500톤)은 30%, 금액(25억 달러)은 20% 증가하였다. 따라서 태국 가공업체들은 2023년에 크게 감소했던 이 제품의 수출을 회복하였다.

태국은 생선 기반 반려동물 사료 부문에서 선도적인 공급업체로서의 입지를 계속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제품의 주요 구매자는 미국, 일본, 중국이다. 고품질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수요가 이 부문의 성장을 촉진하고 있다. 한 해 동안 태국은 작년에 비해 약 83만 톤(19% 증가)의 반려동물 사료를 생산하였다.

연어 통조림 수출도 회복세를 보이며 22% 증가한

1만 1,800톤을 기록하였다. 주요 구매국은 미국, 호주, 일본으로, 미국의 비중은 53%이다.

고등어 통조림 수출은 일본과 미국의 수요 약세로 인하여 5% 감소한 1만 5,200톤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신흥 시장으로의 수출은 상당한 성장을 보였다.

참고로 태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생선 통조림 및 가공품 수출국이자 아세안에서 가공 수산물 수출을 주도하는 국가이다. 태국은 이 분야에서 잘 발달한 가공 인프라와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태국 어류 가공 산업의 주요 장기 추세 중 하나는 어획량 감소와 태국의 제한된 어족 자원을 배경으로 원어 부족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태국은 2024년에 약 85만 톤의 냉동 참치를 수입하였다. 또한 태국은 고등어, 연어, 두족류 연체동물을 가공 및 재수출하기 위해 수입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가공용 원료를 판매하기 위해 태국 시장에 잠재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다.

* 출처: Fishnet, 2025년 3월 6일자





中, 2024년 해양산업 총생산 10조 위안 달성 어업·조선 등 성장 안정세

중국 자연자원부가 2월 24일 발표한 ‘중국 해양경제통계공보’에 따르면, 2024년 해양산업 총생산액은 전년도 대비 5.9% 증가한 10조 5,438억 위안(약 2,077조 원)이다. 10조 위안을 돌파한 것은 역대 최초로, 해양산업 총생산액이 중국 국내총생산(GDP)에서 점유하는 비중은 7.8%이다. 자연자원부는 “국내 해양경제의 성장은 강력하고, 새로운 진전을 이루어 내는 중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산업구조별로 보면, 제1차산업의 부가가치액은 4,885억 위안, 제2차산업은 3조 7,704억 위안이며, 제3차산업은 6조 2,849억 위안으로 총생산액의 59.6%를 점유하고 있다.

산업별로는 해양제조업의 부가가치액의 3조 1,800억 위안으로 총생산액의 약 3할을 차지한다. 내해해양선박공업은 14.9% 증가한 1,370억 위안이다. 조선업의 주요 지표인 신규 수주량이나 신조선 준공량, 착수량은 순조롭게 확대 증으로, 3항목 모두 전세계에서 50% 이상의 지분을 차지한다. 해양공사설비 제조업도 호조로, 전년도 대비 9.1% 성장한 1,032억 위안을 기록하며, 7년 연속 세계 점유

율 1위 자리를 지켰다.

해양서비스업은 해양경제의 견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중 해양관광산업은 전년도 대비 9.2% 성장한 1조 6,135억 위안을 생산하였다. 개인여행수요의 상승에 따라 해양 관련 관광업이 호조를 보였고, 특히 크루즈선 여행이 크게 늘었다. 해양교통수송업은 7.4% 증가한 8,194억 위안을 기록하였다. 항만의 화물처리 능력은 전년에 비해 9.5% 증가하였고 중국 연해 지역의 항만 서비스 능력은 한층 향상되었다.

해양 어업, 자원, 에너지 관련 산업의 공급 능력은 여전히 안정적인 성장을 보인다. 어업 부가가치액은 전년도 대비 4% 증가한 4,880억 위안으로 이 중 수산가공업은 4.8% 증가한 1,008억 위안이었다. 석유·가스의 생산량은 계속해서 증가세로, 석유 생산량은 4.7% 증가, 천연가스는 8.7% 증가하였다. 해상 풍력발전량은 1,057억 4,000만kW로 전년도 대비 28.2% 증가하였다.

* 출처: 미나토신문, 2025년 3월 11일자



명태

손 택 수

감나무에 한겨울에는 명태가 열렸다 앙상하게 빼마른 가지 땀 아래 귀한 손님이 오면 파곤 하던 명태가 한두 마리씩 매달려 있었다 속내를 알 수 없는 뒤란의 우물처럼 캄캄하다가도 홍시를 묻어논 찰뒤투처럼 환하게 밝아오던 외할머니 품속을 더듬다 잠이 드는 밤이면 감나무 뿌리는 용궁에 사는 모양이지 용궁에 친 그물처럼 물고기들을 낚아올리는 모양이지 어느날인가는 눈보라 속에서 서걱서걱 동태 부딪는 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오기도 하였다

그러던 어느 هنگ, 새뱃돈을 유난히 후하게 주던 삼천포 큰이모부가 손꼽아 기다려지던 어느 밤인가 기다리던 이모부는 어찌 오지 않고, 저녁 늦게 두 그릇이나 먹은 식혜에 오줌보를 쥐고 내려선 토방앞 줄 끊어진 연처럼 간드랑거리던 명태 옆에서 이모는 까닭 모를 눈물을 흘치고 있었다 나는 그런 이모가 무서워서 그만 오줌보 대신 울음보를 터뜨리고 말았는데

슬하에 짙은 먹그늘을 드리우고도, 봄바람이 불면 감나무 이파리는 어김없이 도톰한 파도소리를 내며 돌아나온 하였다 겨우내 명태가 슬어놓고 간 알처럼 꽃이 피어나곤 하였다 그러면 어린 나는 감꽃 목걸이를 만들고, 꽃감처럼 하나하나 빼어먹는 재미로 날이 저무는 줄 모르고..... 벌써부터 나무 위에서 명태를 낚는 계절이 기다려지는 것이었다 명태와 함께 오지 못한 사람들이 문득 문득 그리워지는 것이었다



2월 오징어 국내 동향

전월 대비 생산량 91% 감소, 수입량 9% 감소

❖ 생산동향(2월 오징어 생산량, 전월 대비 91% 감소한 194톤)

2월 오징어 생산량은 194톤으로 전월 대비 91%의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모두 연근해산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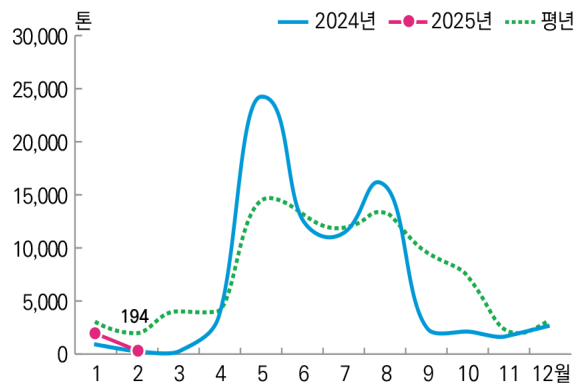
작년 동월 대비 2.0% 감소하였으나, 평년 대비 91.3% 감소한 수치이다.

동해 중남부 해역에서 어장이 형성되었으나 자원밀도가 낮았다.

수협별 위판량은 통영 53톤, 거제 25톤, 포항 16톤 등 주로 남해안 및 동해안지역에 소량의 위판 실적이 있었다.

한편, 원양산 오징어 생산은 작년 12월부터 재개되었으며, 2월 원양산 오징어 반입은 없었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원양오징어 생산량은 2만 2,451톤으로 작년 동월(1만 4,091톤) 대비 59.3%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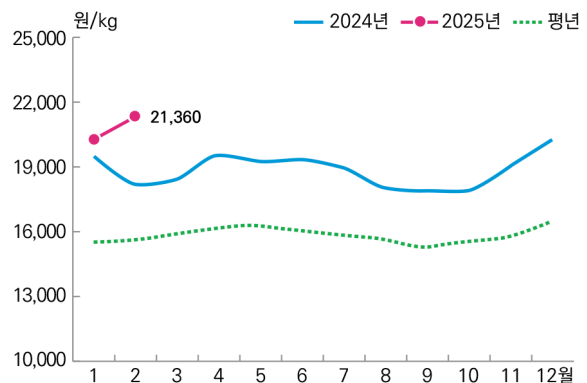


❖ 가격동향(2월 냉동오징어 소비자가격, 전월 대비 6% 상승)

오징어(신선냉장) 산지가격은 전월 대비 18.3% 상승한 kg당 8,059원으로, 작년 및 평년 동월 대비 각각 50.9%, 70.7% 높았다.

오징어(냉동) 소비자가격도 전월 대비 5.7% 상승한 kg당 2만 1,360원으로, 작년 및 평년 동월 대비 각각 17.0%, 36.5% 높았다.

한편, 연근해산과 달리 생산이 원활했던 원양산 오징어의 소비자가격(냉동)은 전월 대비 1.3% 감소한 kg당 1만 1,950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4.3% 낮았다.





❖ 수출입동향(2월 오징어 수입량, 전월 대비 감소)

2월 오징어 수출량은 2,501톤으로 전월 대비 27.9% 증가하였으며 작년 및 평년 동월보다 많았다.

국가별로는 스페인으로의 수출량이 696톤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중국 637톤, 태국 305톤, 미국 286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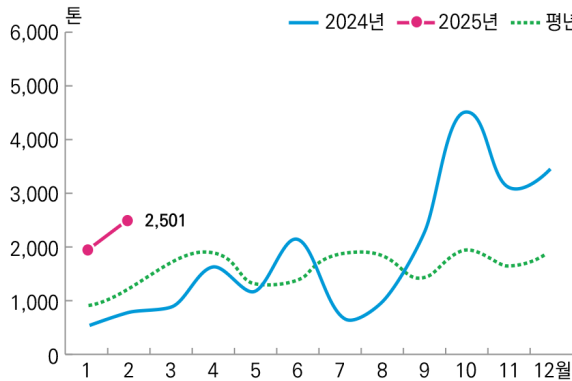
제품 형태별로는 냉동품이 2,126톤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기타 194톤, 조미오징어 147톤 등으로 나타났다.

2월 오징어 수입량은 전월 대비 8.9% 감소한 1만 1,086톤으로 작년 및 평년 동월 대비 각각 29.6%, 34.1% 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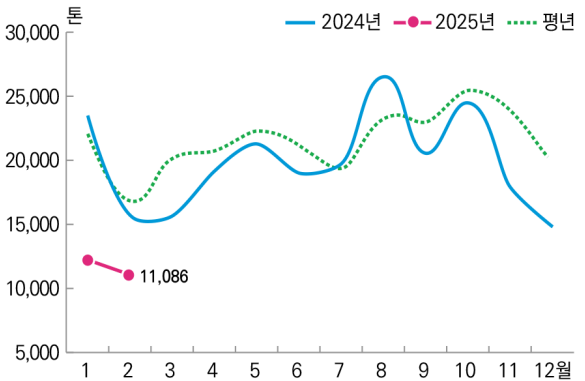
국가별로는 중국산이 7,337톤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칠레산(1,148톤), 카메룬산(967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제품 형태별로는 냉동오징어가 5,986톤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기타(2,963톤), 조미오징어(1,980톤), 건조오징어(152톤) 등의 순이었다.

〈 오징어 수출량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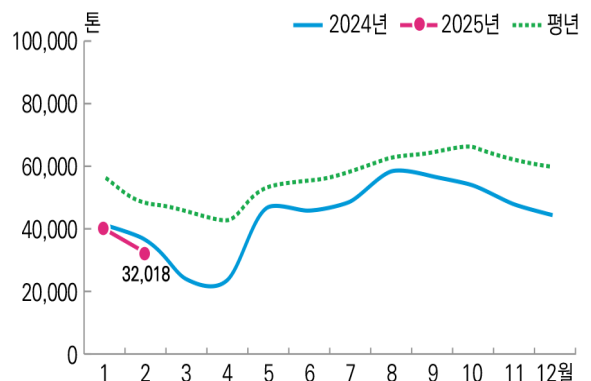
〈 오징어 수입량 추이 〉



❖ 재고동향(2월 오징어 재고량, 전월 대비 20% 감소)

2월 말 오징어 재고량은 전월 대비 19.8% 감소한 3만 2,018톤으로, 작년 및 평년 동월 대비 각각 12.1%, 34.0% 적었다.

연근해산은 8,157톤, 원양산은 2만 3,861톤으로 전월 대비 각각 17.1%, 20.7% 감소하였다.



* 출처: KMI 수산물측 3월호



2월 명태 국내 동향

전월 대비 수입량 25% 감소, 소비자가격 4%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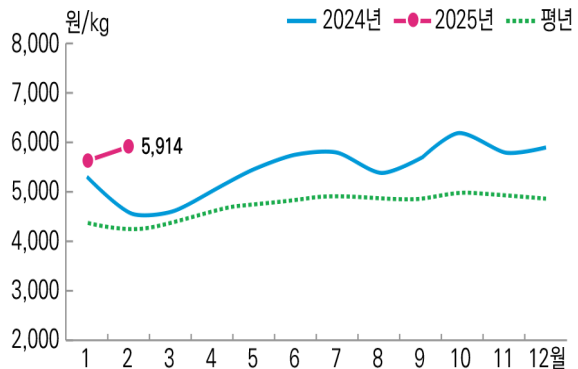
❖ 생산동향(휴어기)

원양트롤어업 휴어기로 원양명태 생산이 없으며, 2024년 어기 어획물 반입은 2024년 12월 27일 종료되었다.

❖ 가격동향(2월 명태(냉동) 도매가격, 전월과 비슷한 kg당 2,403원)

2월 명태(냉동) 도매가격은 kg당 2,403원으로 전월과 비슷하였으며 작년 동기에 비해서는 소폭 낮았다.

명태(냉동) 소비자가격은 kg당 5,914원으로 전월 대비 4.3% 상승하였다. 이는 정부 비축수산물인 종로되었고, 일부 대형소매점 할인율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 해외동향

○ 러시아산 H&G 명태 가격 안정세, 공급 회복 영향

러시아산 H&G 명태 가격은 생산감소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다.

단, 2월에 명태 생산량은 다소 회복되었고, 그 결과 중국에서의 러시아산 명태의 C&F 가격이 하락하는 등 안정세를 보인다.

한편, 2월 명태 필렛 생산량은 전월 대비 18% 감소한 1만 4,330톤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지난달 H&G 가격 상승으로 일부 기업에서 H&G 생산을 늘렸기 때문이다.

○ 2025년 베링해 명태 TAC, 작년 대비 5% 증가

2025년 베링해 명태 생물학적허용어획량(ABC; Allowable Biological Catch)은 240만 톤으로 작년 대비 4.5% 증가하였다.

베링해 명태 TAC는 ABC에 기반하여 작년 대비 5.8% 증가한 137만 5천 톤으로 승인되었다.

반면, 알래스카 지역의 TAC는 작년 대비 감소한 15만 6천 톤으로 조정되었다.



❖ 수출입동향(2월 명태 수입량, 전월 대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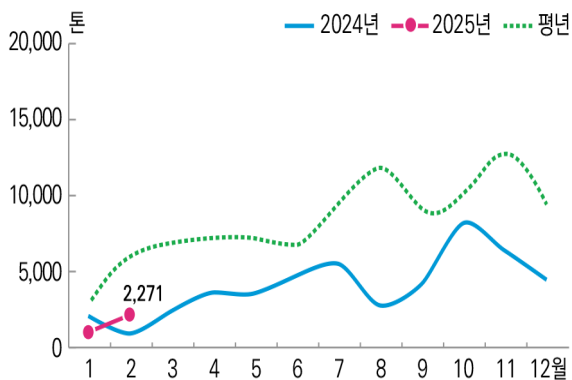
2월 명태 수출량은 2,271톤으로 전월 및 작년 대비 각각 99.4%, 160.1% 증가하였다. 그러나 평년에 비해서는 62.0% 적었다.

국가 및 제품형태별로 보면, 냉동명태는 중국(794톤), 일본(528톤) 및 베트남(206톤) 수출되었고, 냉동연육은 중국으로 130톤 거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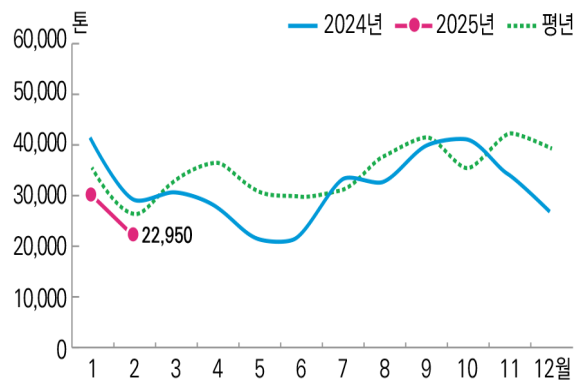
명태 수입량은 전월 대비 24.6% 감소한 2만 2,950톤으로, 작년 및 평년에 비해서는 각각 19.0%, 12.7% 적은 양이었다.

국가 및 제품형태별로는 러시아산 냉동명태가 1만 2,020톤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러시아산 냉동연육(3,940톤), 미국산 냉동연육(3,035톤)순이었다.

〈 명태 수출량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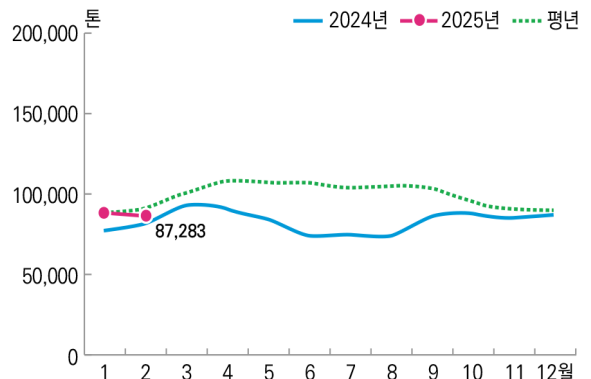
〈 명태 수입량 추이 〉



❖ 재고동향(2월 재고량, 전월 대비 감소)

2월 말 기준 명태 재고량은 8만 7,283톤으로 전월 대비 2.1% 감소하였다. 이는 반입이 종료되었고, 수입도 줄었기 때문이다.

명태 재고량은 작년에 비해서는 6.2% 많았으나, 평년보다는 4.6% 적었다.



* 출처: KMI 수산물측 3월호



강도형 장관, 우루과이 대통령 취임식 특사로 파견

남미 우방국인 우루과이와의 우호관계 강화에 기여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야만두 오르시(Yamandu Orsi) 신임 우루과이 대통령 취임식 경축 특사로 2월 28일(금)부터 3월 2일(일)간 우루과이를 방문하여, ▲오르시 신임 대통령 예방, ▲대통령 취임식 참석, ▲알프레도 프라티 우루과이 축산농업수산부 장관 면담, ▲교민·기업인 초청 간담회 참석, ▲우리 원양어선 방선 등의 일정을 가졌다.

강 특사는 대통령 취임식 전날인 2월 28일(금) 오르시 대통령을 예방해서 취임을 축하하고 권한대행의 각별한 안부를 전달하였다. 강 특사는 오르시 대통령에게 몬테비데오 항구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40여 척의 우리 원양어선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오르시 대통령의 임기 중 양국 간 고위급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고, 경제, 재생에너지, 방산 및 문화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심화 및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오르시 신임 우루과이 대통령은 자신이 지방정부에 근무하던 2012년 한국을 방문했던 경험을 언급하고, 자신이 한국의 놀라운 경제발전과 앞선 과학기술에 대해 존경심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경제, 과학기술, 문화, 대학교육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 간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자고 화답하였다.

또한, 강 특사는 오르시 대통령 예방에 배석했던 루이스 알프레도 프라티 실베이라(Luis Alfredo Fratti Silveira) 우루과이 축산농업수산부 장관을 별도 면담하고, 양국 간 원양어업, 농업생명공학 등 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강 특사는 올해 4월 부산에서 개최 예정인 제10차 아워

오션 콘퍼런스와 APEC 해양관계장관회의에 대한 알프레도 프라티 장관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하였다.

3월 1일(토) 개최된 대통령 취임식에는 65개국 정상·장관급 정부 대표와 여러 국제기구의 대표들이 참석하여 오르시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였다. 오르시 대통령은 국회에서 개최된 선서식 참석 후 대통령 권력 이양식이 개최되는 독립광장으로 이동하면서 한국산 전기차를 이용하여 눈길을 끌기도 하였다. 이후 에스떼베스 궁에서 진행된 경축 사절 접견식에서 오르시 대통령은 강도형 특사를 비롯한 각국 대표들로부터 축하의 인사를 받았다.

한편, 강 특사는 3월 1일(토) 우루과이 교민 및 기업인 초청 간담회 및 그 전날 몬테비데오 항에 정박 중인 우리 원양어선 방선 일정을 통해 우리 교민들과 기업인 그리고 우리 원양어선들의 현지 활동을 격려하는 한편 이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였다.

이번 특사 파견은 우리나라와 1964년 수교 이래 우호협력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오고 있으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남미의 대표적 우방국인 우루과이와의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SPRFMO, 쿼터 25% 증가 등 보존관리조치 합의 이빨고기 시험조업 승인

해양수산부는 2월 17일부터 21일까지 칠레에서 개최된 남태평양지역수산물관리기구(SPRFMO) 제13차 총회에서 우리나라의 이빨고기 시험조업 제안서가 승인됐다고 밝혔다.

그간 우리나라는 남서대서양 및 남극해양생물보존위원회(CCAMLR)의 관리 수역에서만 이빨고기 조업을 해왔으나, 이번 승인으로 이빨고기 조업을 위한 새로운 어장을 확보하게 되었다. 또한, 새로운 시험조업으로 남극해 인접 남태평양 해역 약 11만㎢ 어장에서의 이빨고기 자원분포 양상 조사 등 SPRFMO에서 과학적 기여도 확대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이빨고기

시험조업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실시될 예정이며, 연간 어획한도는 240톤이다.

아울러, 동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전갱이 연간 어획한도가 기존(2024년) 14,805톤에서 3,701톤(25%) 증가한 18,506톤(2025년)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국가별 전갱이 어획한도는 동 기구에서 매년 실시하는 자원평가 결과와 국가별 할당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이번 전갱이 어획한도 증가는 자원평가 결과가 작년에 이어 작년에도 긍정적으로 도출된 데에 따른 것이며, 회원국들은 전년(1,242,000톤) 대비 총허용 어획량(TAC)을 25% 늘리기로 합의하였다.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실시

6개 수입 수산물 취급 업체 1,500개소 이상 점검

해양수산부는 3월 10일(월)부터 28일(금)까지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조사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이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대상품목(21개) 중에서 수입량 또는 원산지 표시 위반이 많은 수산물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수입량* 기준으로는 냉동조기, 냉동꽂치, 냉동꽃게 등 3개 품목, 원산지 표시 위반의 경우 거짓 표시** 적발 건수가 많은 산낙지, 활참돔, 활가리

비 등을 대상 품목으로 선정하였다. 점검 대상은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업체로, 약 1,500개소 이상을 점검할 예정이다.

* 수입량 상위 품목(2024년, 톤): 냉동조기(19,266), 냉동꽂치(18,611), 냉동꽃게(11,067)

** 거짓표시 적발 상위 품목(2024년, 건수): 활낙지(26), 활참돔(20), 활가리비(10)

아울러, 최근 수입 증가로 원산지 거짓표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암컷대게와 향어 등에 대한 특별점검도 병행 추진한다.